Weekly
공감
2011.04.13 NO.105
gonggam.korea.kr
농협법 개정
농민 숙원 풀리나 P17~36
장애인들에 '거위의 꿈' 안겨 준 가수 인순이의 노래 열정 P38~39
'문학 한류'를 부탁해…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미국 돌풍 P40~41

2011 농협법 개정!
새로운 출발입니다!

지난 5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농협이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국민에게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농협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농협으로 도약하겠습니다.

17년 만의 농협법 개정은 대한민국 농업을 더 강하게,
농업인과 국민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출발입니다.

농업인의, 농업인을 위한 농협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농협중앙회의 신경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농협이 '농업인생산자협동조합'이란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생산자협동조합의 제1목표는 농민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팔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종합농협 체제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은행업 중심으로 운영해 판매사업을 활성화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협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사업의 수익을 가지고 회원조합을 통제하며 나아가 회원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가로막았다. 농업계와 학계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주장했던 것이다.

이번 농협법 개정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진정한 조합원의 농협, 국민의 농협으로 탈바꿈하여 농협의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농협 백년대계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비판을 극복해야 한다. 즉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실행해 갈 때 '민주적 운영'과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열쇳말'을 항상 되돌아보아야 한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경제사업 활성화이다.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경제사업 체질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다만 농협 경제사업의 목표를 경제지주회사의 수익성 극대화로 잡아서는 곤란하다.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는 농민조합원과 일선조합, 중앙회가 협력하는 사업시스템을 만들고, 성과를 공유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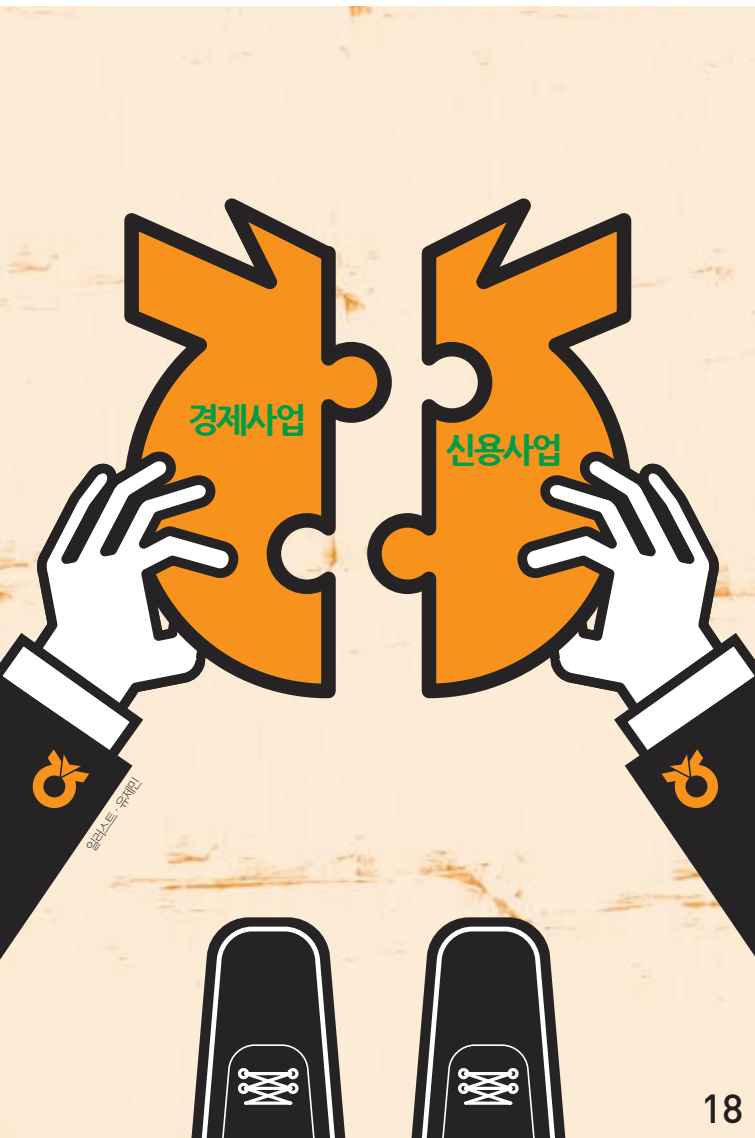
농협은 이번 농협법 개정으로 진정한 조합원의 농협, 국민의 농협으로 탈바꿈할 기회를 잡았다. 농협은 농업계의 가장 큰 조직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기회에 '국민농업'의 가치를 구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조합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민주화해야 한다. 중앙회와 경제지주뿐만 아니라 일선조합에 대해서도 조합원의 참여 통로를 확대하고, 대의원과 임원 등 협동조합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보면 농협은 단지 하나의 협동조합 조직일 뿐이다. 그럼에도 농협의 진로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농협이 차지하는 특수한 위치 때문이다. 농협은 농업 관련 각종 활동의 절반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농업계의 가장 큰 조직이다. 농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협은 또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농산물과 식품을 다루고 있고, 관련 도소매 유통에서 민간 기업을 견제하는 등 국민 생활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 농협은 '국민농업'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협동조합 사업을 발전시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번 농협법 개정은 농협과 농업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첫걸음일 뿐이다. 법의 취지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농협의 임직원과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G

Contents NO.105 2011.04.13 통권 206호

기 획 특 집

농협의 환골탈태 농업인에겐 '햇살'

농업인들의 17년간의 숙원이 풀렸다. 농협법이 개정된 것이다. 농업인들에게는 더 나은 소득을,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더욱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자는 게 목표다. 농협과 정부는 2012년 3월 새롭게 출범하는 농협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준비작업에 굵은 땀을 흘리고 있다.

01 **Reader & Leader** |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18 **총론** | '개혁 씨앗' 17년 만에 알곡 수확

20 **생활경제 현장을 가다** | "농협법 개정은 농업사에 큰 획을 긋는 일"

22 **경제사업 모범 현장** | 연합 브랜드 K멜론, 값 올려 더 잘 팔리는 이유?

24 **농민 반응** | "이제 농사에만 전념하면 되는 거죠"

25 **농협법 개정의 주역들** | 국회 상임위 한뜻 모아 만장일치 통과

26 **인터뷰** | 최인기 민주 의원 "경제사업 중심으로 바꾼 게 개정 핵심"

27 **인터뷰** | 정해걸 한나라 의원 "초당적 협력이 만든 상생정치의 모델"

28 **해외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 | 숱한 실험… '협동조합+자회사'로 진화

30 **새로운 농협에 바란다** | "이젠 농산물 제값 받나" 농업인들 기대감

32 **인터뷰** |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농업인 · 소비자 윈윈 할 겁니다"

34 **인터뷰** |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모두 '지금 해야 한다' 공감 이뤄 합의"

36 **만화로 본 농협법 개정** | 국민 그리고 농업인에게 한 발 더!

표지 이야기 지난 4월 4일 이명박 대통령이 농협법 개정의 의미와 정책방향을 전하는 라디오연설에서 새로운 농업의 모범사례로 언급한 안홍석씨. 경북 영천에서 배를 재배하는 용수농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 안홍석씨 제공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04.13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정병국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38

06

42

04 **공감 라운지** | '차기 다련장로켓' 이름 지어 주세요

06 **이슈 현장** | 따르릉! 따르릉! 은륜 축제가 온다

08 **희망의 숲** | 빈터였던 강변에 미래를 심었다

10 **포커스** | 미래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자

중점기획 한 · EU FTA 비준 급하다

12 **기대효과와 보완대책** | 중동사태 등 악재 뚫을 '16조 달러 시장'

14 **인터뷰** | 황문연 기획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장
"시장 선점 위해선 빠른 비준 필요해"

16 **중소기업인의 희망** | "유럽 바이어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다"

38 **이 사람** | 가수 인순이, 장애인들에 콘서트
"그래요, 여러분에겐 꿈이 있어요"

40 **문학** | 신경숙, '문학 한류'를 부탁해

42 **화제의 인물** | 수리수리 마수리! 이은결 전설이 되다

44 **스포츠** | "영웅은, 스포츠 영웅은 늘 그립다"

47 **공감 정보** | 결혼이민자들 '내 일(my work)'이 옵니다

48 **상생 현장** | 강릉 금진온천, 협업으로 동북아 의료관광 허브 만든다

50 **G20세대가 G20세대에게**
23세 나! 인도 뭄바이서 세상을 품다

52 **역사탐험** | 백제 개로왕, 이이제이 외교술로 고구려를 괴롭히다

54 **공감여행** | 봄멸치 그물 위로 춤추면…
기장 대변포구에 봄날이 온다

58 **책 읽어 주는 남자** | 〈퇴계,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

59 **공감 카툰** | 투자 성공 비법

60 **화제의 책** | 나카소네 前 일본 총리의 〈보수의 유언〉

61 **디딤툰** | 글로벌 에티켓 ㉞ 도미노 도로

62 **문화 공감** | 사별한 부부의 유쾌한 러브스토리

64 **소통칼럼** | 정재형의 '영화 속 영웅이야기'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4월 14일(목)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축산 농가에 웃음꽃 피길!

"지난호 '소를 누가 키우냐고요? 역시 우리죠'란 제목의 가평 축산농가들의 송아지들 재입식 기사가 좋았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다시 힘을 낸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기사였습니다. 소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축산농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봄날처럼 웃음꽃 피는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숙경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해야

"'국민 안심하게 日축·수산물 검사 철저' 기사를 읽고 나니 일본의 원전시설 파손으로 인한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실감납니다. 정부가 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검역작업과 수돗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특히 음식에 대해서는 섣부른 낙관적인 자세보다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최남이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분열된 국론이 다시 뭉치길

"지역균형 발전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 결여 때문에 공약(空約)이 되어버린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나 하나 편하자고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줄 순 없다'고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용기 있게 밝힌 기사를 읽으며 분열된 국론이 하루빨리 하나로 뭉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인식 (대전시 서구 둔산동)**

지면으로 공감한 생생한 강연

"소통의 달인, 작가 이외수씨의 강연을 지면으로나마 전해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인 만큼 일반인들이 접할 수 없는 기회였으나 '읽는 강연'으로 재전달해 준 덕분에 일반 독자들도 더불어 소통의 힘을 일깨울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소통의 중요성은 물론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까지 공감도 높은 내용을 접하면서 강연회 객석에 앉아 있는 듯 생생하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유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우리 사회 기부문화가 자리 잡길

"배우 신영균씨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5백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예술문화기금으로 쾌척할 수 있었던 것이 놀랍습니다. 신영균씨의 기부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기부문화가 자리 잡길 바랍니다." **황복희 (대전시 동구 성남동)**

이 기사, 아쉬워요

"향후 생길지 모를 위험도 언급해 줬으면"

'일본 방사능' 기사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여간 불안한 게 아닌데요. 앞으로도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당장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향후 생길지 모를 위험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영 (주부,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만일의 사태 대처방안 심도 있게 알려줬으면"

기획특집으로 다룬 '일본에는 없는 한국의 방사능 대책' 기사에서 Q&A, 용어설명, 방사능 비상사태 시의 행동요령 등 다양한 정보가 실려 알기 쉬웠습니다. 우리의 원전시설에 대한 안전문제도 다루어지고 있는데, 만일의 사태 발생에 따른 대처방안을 심도 있게 제시해 주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작은 여운이 남습니다. **박동현 (회사원,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균형 잡힌 시각으로 써 주길"

1인당 국민소득이 3년 만에 2만 달러를 돌파했다는데, 일반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소득이 늘어도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니 주부들은 여전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소득 증가분과 지출 증가분을 감안한 내용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박경숙 (주부,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농민들의 심정 궁금해요"

구제역 파동으로 소를 모두 살처분 한 후 다시 입식하게 된 농민의 이야기가 이색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고 기일이 늦어 보상금을 조금밖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한 줄도 안되게 언급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늦은 신고로 60퍼센트밖에 보상받지 못했을 때의 심정 등을 기술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수현 (회사원, 부산시 중구 보수동)**

알립니다

▢ '차기 다련장로켓' 이름 지어 주세요

방위사업청은 차기 다련장로켓(MLRS)의 명칭 선정을 위한 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현재 개발 중인 차기 다련장은 신형 무기로,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체계다.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지켜 줄 차기 다련장의 이름을 한글이나 영문 중 선택하여 짓고, 이름의 의미와 함께 응모하면 된다.

접수 기간 | 4월 30일까지
접수 방법 | 이메일(sg013yk@korea.kr) 또는 방위사업청 블로그 응모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dapapr)
다음 블로그(http://blog.daum.net/dapapr)
결과 발표 | 6월 중 예정
지원 혜택 | 당선작은 소정의 상금 수여
방위사업청 차기 다련장 담당자 ☎ 02-2079-5461 www.dapa.go.kr

▢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개발해 주세요

통계청은 '국정현안과제 대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일반국민의 경우 통계조사 시 응답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 공무원이라면 국가 통계 생산의 선진화 방안을 제안하면 된다.

접수 기간 | 5월 9일까지
접수 방법 | 통계청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인터넷 접수
결과 발표 | 5월 말 예정
지원 혜택 | 시상 외 소정의 상금 수여
통계청 행정관리담당관실 ☎ 042-481-2308, 2036 www.kostat.go.kr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뽑아주세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인기투표가 한창(11월 10일까지)인 가운데 '제주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전화 투표 | 001-1588-7715, 영어 안내 음성 후 '삑' 소리가 나오면 7715(제주선정코드)를 입력한다.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면 종료. 전화료 약 1백40원.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www.jejun7w.com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9	10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4월 19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1. 농업협동조합을 줄여서 이렇게 부르죠.
3.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늘 갖추어 둠. ○○약품.
5.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매우 엄격하다는 뜻을 가진 형용사의 어근. "역사의 ○○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7. 재빠른 손놀림과 기술, 여러 가지 장치 등을 써서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을 보여주죠.
9. 자비심으로 조건 없이 절이나 스님에게 금품을 베푸는 일.

세로

2.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 여럿이 의논하죠. 또는 나라끼리 외교문서를 교환하여 어떤 일에 대해 약속하는 일이죠. FTA ○○.
4.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 · 동의하는 절차.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하죠. "한 · EU FTA의 조기○○이 필요하다."
6. 아무리 많이 불러도 좋은 이름입니다. 어머니.
8. 십이시(十二時)의 열한째 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죠.
10.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 "농협법 개정의 ○○이다."

〈Weekly 공감〉 103호(3월 30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새만금 **3** 나물 **4** 고유가 **6** 이태원 **8** 자랑거리
세로 **1** 새물 **2** 금고 **3** 나들이 **5** 가장자리 **7** 원자력

〈Weekly 공감〉 102호 '공감 퍼즐' 당첨자

권영란 · 서울시 양천구 목4동
김세훈 · 전남 목포시 산정동
박형호 ·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
유홍수 ·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장지영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지난해 4월 '투르 드 코리아 2010' 참가선수들이 강원 강릉시 진고개~연곡면 구간의 벚꽃길을 달리고 있다.

따르릉! 따르릉! 은륜 축제가 온다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16일 상주서… '투르 드 코리아'도 15일 구미서 스타트

자전거가 저탄소 녹색교통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굵직한 자전거 축제들이 열려 눈길을 끈다.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과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투르 드 코리아 2011'이 그것이다.

올해로 3회째 맞는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이 4월 16일 경북 상주시 북천시민공원 개막식을 시작으로 9일간 16개 시·도에서 열린다. '자전거축전'은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국 16개 도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참여한다.

이번 축제의 개막식을 진행하는 상주시는 인구 11만명에 자전거 보유대수 8만5천 대, 교통수송분담률 21퍼센트의 생활자전거 정착 도시로 유명하다.

개막식 공식행사는 자전거 묘기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성백영 상주시장의 개막선언, 다문화가정 자전거 기증식 등으로 진행된다. 상주시 측은 축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5천여 명의 상주시민이 참여하는 자전거 퍼레이드가 기대를 모은다.

퍼레이드는 개막식이 열리는 북천시민공원을 출발해 후천교~서문사거리~낙양사거리~북천교를 거쳐 행사장으로 돌아오는 4.3킬로미터의 코스에서 펼쳐진다. 24개 단체 2천1백여 명의 가장행렬단과 3단, 5단 이색자전거 행렬도 만나볼 수 있다.

'자전거 축전' 개막식에 상주시민 5천여명 퍼레이드

올해 '자전거도입 1백주년'을 맞는 상주시는 북천시민공원에 '자전거 역사 100년 상주' 홍보관도 운영한다. 1910년 자전거 도입기부터 1924년 상주역사 준공을 기념하는 조선팔도자전차대회, 1960년

상주시청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개막식은 올해 상주시 북천시민공원에서 열린다.

대 통학생 모습을 담은 사진 등 자전거 변천사를 한눈에 관람할 수 있다.

이동 자전거 박물관에는 상주자전거박물관의 전시 자전거 중 최초 자전거와 이색자전거 등 20여 점이 전시된다. 수상자전거 체험장, 자전거 모험 체험장 등 체험공간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개막식 당일 축전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코레일관광개발에서는 '에코레일 자전거 열차'를 운행한다(서울역–상주역 왕복 대학생 1만원, 동호회원 3만원). 자전거 거치 객차 3량(총 2백40대 수용)을 포함한 특별 열차로 열차 내에선 녹색관광 홍보 강연실을 운영한다.

'투르 드 코리아' 24일까지 1천4백킬로 레이스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도로사이클 축제 '투르 드 코리아(Tour De Korea) 2011'도 4월 15일부터 전국 10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는 투르 드 코리아 2011은 15일 개막도시인 구미를 출발해 거창~강진~군산~당진~충주~영주~양양~춘천 등 전국 9개 거점도시를 거치며 24일까지 이어진다. 축제는 24일 서울 대회(광화문~올림픽공원 구간)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경주는 국내외 UCI(국제사이클연맹) 등록선수로 구성된 엘리트 경주와 국내외 자전거 동호인들이 출전하는 스페셜 경주로 나눠 진행된다.

대회 기간 동안 해외 15개국 17개 팀과 국내 4팀 등 총 21개 팀이 은빛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출전 선수들은 대회 마지막 날까지 9개 거점도시 총 1천4백킬로미터를 달리게 된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스페셜 경주는 두 차례 사전테스트를 거친 2백여 명의 동호인이 선수로 참여, 8백45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지는 레이스를 벌이게 된다.

엘리트 경주와 스페셜 경주를 합쳐 총연장 2천3백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코스는 우리나라 관광명소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설계했다.

세계 최장거리인 새만금 방조제를 비롯해 보성녹차밭, 변산반도, 월악산, 충주호, 광화문과 한강 등을 질주하게 된다.

정정택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대회는 정부의 녹색성장에 발맞춰 자전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 참여형으로 전개해 자전거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G 글·박근희기자

빈터였던 강변에 미래를 심었다

식목일 맞아 2백88곳서 1백60만 그루 심어… “후손에게 좋은 쉼터 되었으면”

2006년 이후 식목일은 더 이상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민들의 나무 심기 열정은 줄지 않았다. 지난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전국에서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다. 올해는 특별한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는데, 바로 ‘희망의 숲 조성’이다. 경기도 양평군의 남한강변에서 희망의 숲 조성을 꿈꾸며 땀 흘려 나무를 심는 사람들을 만나 봤다.

올해 식목일 행사는 산지, 도시, 강변 등 다양한 공간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숲을 조성하는 나무 심기로 실시되어 더욱 의미가 깊었다. 양평군산림조합원들이 황량했던 남한강변에서 푸른 숲을 꿈꾸며 분주하게 나무를 심고 있다.

붉은 흙이 뒤덮인 남한강 둔치에 생명을 머금은 나무가 심겼다. 4미터 크기의 느티나무를 심던 장정 6명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흘렀다. 지난 4월 5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강상체육공원에서 열린 ‘교평 나루께 희망의 숲’ 식목 행사에는 5백여 명이 참여했다. 양평군 주민 외에도 국가보훈처, 아시아나항공 등 다른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강변이 모처럼 붐볐다.

제66회 식목일을 맞아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남한강 교평지구 7천제곱미터에 느티나무와 소나무 등 큰 나무 1백50그루와 영산홍과 산철쭉 등 작은 나무 2천5백여 그루를 심었다. 빈터였던 강변을 희망의 숲으로 가꾸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양평군청 이진수 녹색성장사업과장은 “원래 강 주변에는 나무가 별로 없다”며 “산과 달리 하천 주변은 홍수가 나면 물에 휩쓸려 내려간 나무들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강변에 나무 심는 것을 억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홍수 걱정 없으니 강변에도 나무 심기 가능해져”

그러나 치수관리가 가능해지면서 강변에 나무 심기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진수 과장은 “이번 ‘희망의 숲 조성’으로 죽은 공간이었던

강변이 살아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된 것"이라며 "강변의 숲 조성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유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먼저 남한강 둔치에는 시원한 그늘막이 되어 줄 느티나무가 심겼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느티나무를 심는 작업은 양평군산림조합원이 도왔다. 임업종사자 이상철씨는 "평소 하는 일이 나무 심기"라며 "나무를 벤 자리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는 것이 원칙이어서 봄이면 강변, 들뿐만 아니라 산에 나무를 심고 있다"며 묵묵히 작업에 몰두했다. 강변에는 산철쭉, 영산홍 등 화사한 작은 나무(관목)들도 심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작은 묘목 심기에 분주했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김윤영씨는 "태어나 처음으로 나무를 심어 봤다"며 "나무를 심는 것이 생각보다 재미있고 정말 뜻깊은 일이라, 내년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가보훈처는 매년 식목일 행사에 희망하는 직원들이 나무 심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보훈처 직원 70여 명이 참여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나무 심기는 오전 11시30분쯤 끝이 났다. 고된 일을 마치고 빵과 우유를 나눠 먹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소망편지 5백여 점 타임캡슐에 묻어

양평읍부녀회로 참가한 이순례씨는 "오늘 강변에 느티나무 3그루를 심었다"며 "내가 사는 동안에 이 나무가 자라 무성한 숲을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후손들에게 좋은 쉼터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보람되다"고 말했다.

특별히 이날 심은 나무에는 참여자들이 남기고 싶은 문구와 이름을 담은 표찰을 달고 신청자 사연과 희망을 적은 메시지 5백여 점을 타임캡슐에 담아 묻었다. 타임캡슐에 담긴 소망편지는 20년 후인 2031년 4월 5일 개봉되어 각자 적은 주소로 발송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선교 양평군수는 "오늘 심은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 우리 땅, 우리 강에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 및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람이 휴식을 취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 2백88곳에서 기관·단체별로 8만여 명이 참여해 1백60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다채로운 식목 행사가 열렸다. 올해는 식목일 행사가 산지, 도시, 강변 등 다양한 공간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숲을 조성하는 나무 심기로 실시되어 더욱 의미가 깊었다.

유엔이 정한 '2011 세계 산림의 해'와 오는 10월 아시아 지역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유엔 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를 기념해 숲의 외연을 확대하자는 의미에서였다.

한강, 금강, 낙동강 등 수변 지역 11곳에서 '희망의 숲 조성' 행사가 열렸으며 전국 임야, 공원 등을 중심으로 나무 심기 행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G

글·이제남 기자

올바른 나무 심기 요령

① 심을 나무의 크기에 알맞게 구덩이를 조금 넉넉하게 판 후, 겉흙과 속흙을 따로 모아 놓고 돌, 낙엽 등을 가려낸다.
② 부드러운 겉흙을 먼저 넣고 묘목의 뿌리를 잘 펴서 곧게 세운 후 겉흙부터 구덩이의 3분의 2가량 채운다.
③ 묘목을 살며시 위로 잡아당기면서 밟아 준다.
④ 나머지 속흙을 모아 지면보다 약간 높게 정리한 후, 흙이 건조되지 않도록 낙엽이나 풀로 덮어 준다.

산림청 · www.forest.go.kr

※지역별 나무 심기 좋은 시기
난대 남부지역(제주, 남해안) 2월 21일~ 3월 30일
온대 남부지역(전남, 경남) 3월 1일~4월 10일
온대 중부지역(충남·충북, 전북, 경북) 3월 11일~4월 10일
온대 북부지역(경기, 강원) 3월 21일~4월 30일

미래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격 출범… "21세기는 원천기술 확보하는 시대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이명박 대통령과 국과위 위원, 정부·국회·과학기술계·산업계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국과위 본회의를 지난 4월 7일 개최했다. 국과위는 대통령 직속의 상설 행정위원회로 한국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관제탑과 같은 기구다.

이날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비전과 역할'이라는 안건 보고를 통해 "개방과 협력으로 국격을 높이고 국부를 창출하는 과학기술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과학기술의 역할, 연구개발 효율성 확보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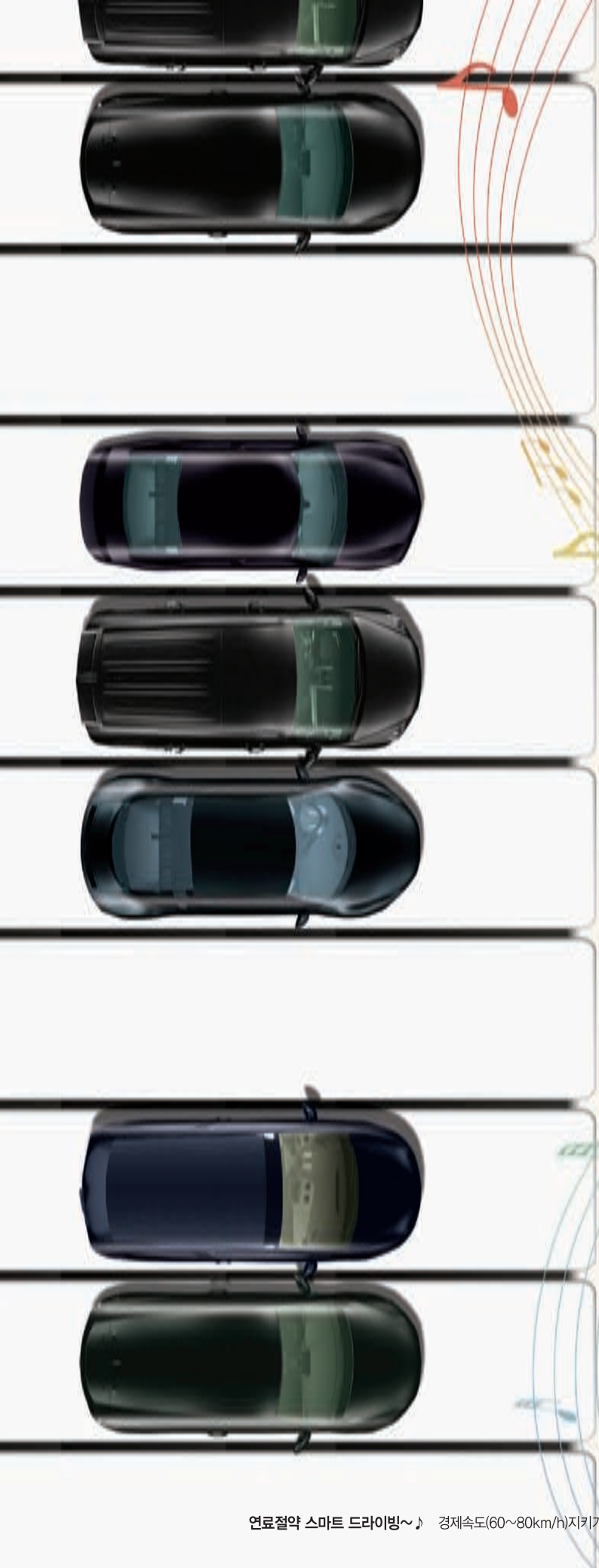
국과위는 본회의에 앞서 정·관·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소속 상설 국과위의 출범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에스타워에서 열린 국가위 현판식에 참석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출범이 대한민국 과학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영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에스타워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현판식을 가진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참석자 중 한 사람이 김도연 국과위원장의 큰 키에 현판의 '과' 자가 가린다고 하자 김 위원장이 무릎을 구부려 참석자 모두가 웃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호 교과부 장관, 김영길 대교협 회장, 김도연 국과위원장, 이명박 대통령, 박상대 과총 회장.

또 이 대통령은 "김도연 위원장을 위시해 여러 위원들이 훌륭한 과학기술의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을 위해 융합해야 한다. R&D 예산 분배를 잘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매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D 예산 분배 매우 공정하게 해야

"문자 그대로 지금은 융합시대"라고 밝힌 이 대통령은 "한국은 R&D 예산이 많은 국가 중 하나다. 이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업화·정보화 시대 거치면서 원천기술에 의존했던 모습들을 많이 봐 왔다. 새로운 21세기는 한국이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시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가 위원장 자리에 가려고 했는데 밀려났다. 뺏긴 셈이다. 다른 직책보다 대통령으로서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는데 늘 깊은 관심을 두도록 하겠다"고 농담을 해 좌중에 폭소가 터졌다.

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으려 했으나 헌법상 문제로 성사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격려를 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홍상표 홍보수석, 김영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박상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글·서일호 기자

중동사태 등 악재 뚫을 '16조 달러 시장'

축산업·화장품 등 EU에 경쟁력 뒤지는 업종은 적극 지원을

한·EU FTA의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적 이득을 높이기 위해서다. 일본대지진과 중동사태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무역여건을 돌파하는 발판이 되리라는 희망도 강하다. 상대편인 EU는 이미 비준을 마치고 우리 측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기업인들은 조속히 비준을 마무리해 우리 경제와 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선DB

한·EU FTA는 장기적으로 GDP를 5.6퍼센트 끌어올리는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사진은 지난 3월 개최된 'FTA 박람회'.

"우리나라의 대 EU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TV 등 영상기기, 섬유와 신발 등의 관세율이 높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 관세철폐를 통한 혜택이 기대된다."(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지난 4월 5일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오영호 무역협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경제4단체 부회장단이 국회를 방문해 한·EU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한·EU FTA의 조속한 비준이 필요한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든다. 한·EU FTA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제적 효과가 첫째다. 교역량과 시장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일본대지진, 북아프리카 정치 불안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무역여건 악화를 극복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둘째다. 마지막으로 일정의 문제다. 오는 7월 1일 발효를 위해서는 4월엔 비준이 돼야 한다는 게 경제단체들의 입장이다.

경제단체들이 강조한 것처럼 한·EU FTA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U의 경제규모는 16조4천만 달러로 세계 경제의 28.3퍼센트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경제권이다. 한국과 교역규모는 연간 9백22억 달러로 전체의 10.3퍼센트다. 기업인들은 EU와 FTA가 발효되면 교역규모와 시장점유율이 확대돼 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무역협회의 국제무역연구원이 EU와 교역업체 3백37개사를

한·EU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단기	장기
실질 GDP	0.1퍼센트	5.62퍼센트
후생기준	0.18퍼센트	3.84퍼센트
고용창출	2만9천9백명	25만3천1백명
수출증가액 (연평균)	25억3천7백만달러	
수입증가액 (연평균)	21억7천5백만달러	
무역수지 (연평균)	3억6천1백만달러	
제조업 생산증가액 (연평균)	1조5천1백56억원	

조선DB

정부는 기업의 FTA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역량이 20퍼센트 이상 불어날 것으로 기업들은 기대하고 있었다. 수출업체의 71.7퍼센트는 현재보다 평균 21.7퍼센트, 수입업체 60.4퍼센트는 22.9퍼센트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했다.

연구결과도 기업인들의 기대감을 뒷받침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합동으로 발표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GDP는 5.6퍼센트 늘어난다. 후생은 GDP 대비 3.8퍼센트인 320억 달러 불어난다.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과 소득증대 덕이다.

기업들 "교역규모·점유율 크게 늘어날 것"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단기적으로는 수출입의 증가에 따라 약 3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한다.

자본축적과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장기적으로는 25만3천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21만9천명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이 3만3천명, 농수산업이 1천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

교역량은 늘고 무역수지는 개선된다. 수출이 25억3천만 달러, 수입은 21억7천만 달러 증가한다. 수입보다 수출 증가액이 많아 무역흑자는 연평균 3억6천1백만 달러 확대된다. 특히 제조업은 향후 15년간 흑자가 연평균 3억9천5백만 달러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이 EU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관세철폐로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의 평균 관세율은 5.6퍼센트지만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은 이보다 높다. 자동차가 10퍼센트, TV 등 영상기기는 14퍼센트다. 관세가 사라지면 이 제품들의 점유율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EU FTA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업종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유럽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산업은 피해가 예상된다. 축산업, 화장품, 의료기기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예상 업종에 대한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보완대책은 이중구조로 구성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2007년 11월 마련된 'FTA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대처하고 한·EU FTA로 인해 피해가 큰 부문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FTA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업종으로 꼽히는 농수산업의 경우 'FTA 국내보완대책'에 따라 향후 10년간 21조1천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한·EU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의 경우 2조원의 예산을 별도로 투입한다. 화장품과 의료기기는 향후 5년간 각각 7백억원, 1천억원의 R&D 및 인프라 구축 자금을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업종 경쟁력 보완에 대규모 재정지원

협정 내용에도 피해예상 업종에 대한 보호장치를 두었다. 업종에 따라 개방 시기와 폭을 다르게 정했다. 경쟁력이 강한 제조업의 개방 시기와 폭은 EU와 대등하지만 농산물이나 서비스업 등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개방 시기와 폭을 EU와 비대칭적으로 정했다.

농산물의 경우 한국은 1천4백49개 품목 가운데 42.1퍼센트인 6백10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반면 EU는 2천64개 품목 중 91.8퍼센트인 1천8백96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서비스와 투자 부문에선 공교육과 의료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개방하지 않고 법률, 회계, 세무, 금융 등은 단계적으로 빗장을 풀기로 했다. G

글·변형주 기자

황문연 기획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장

"시장 선점 위해선 빠른 비준 필요해"

한·EU FTA의 효과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기업들이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업들의 준비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홍보와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한·EU FTA가 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입체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황문연 기획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장에게 한·EU FTA의 의미와 활용법을 들었다.

정은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회복했는데 앞으로 4만 달러, 5만 달러의 당당한 선진 경제를 만들려면 해외 시장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FTA는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FTA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이 뜨거워지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FTA는 국가의 미래, 선진 경제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황문연 기획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장은 FTA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외의존도가 85퍼센트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경우 FTA에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업들은 FTA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단장은 "지난해 인도에서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FTA와 유사하다)와 관련한 설명회를 가졌는데 의자가 모자라 서서 들어야 할 정도로 인도 기업인들이 몰려 깜짝 놀랐다"며 "우리 기업들도 FTA를 실용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EU FTA 비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대로 발효가 돼야 하지요. 세계는 현재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하게 FTA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EU FTA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일본도 EU와 FTA에 관심이 높습니다. 이들보다 앞서 FTA를 발효해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7월 1일 발효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날짜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011년 7월 1일 발효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이 날짜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U와 우리 모두 7월 1일 잠정발효를 목

표로 모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EU는 이미 유럽의회 비준을 마치고 우리 측 비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1일 발효를 하려면 4월엔 꼭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발효를 위해 이행법률(11개)과 시행령 등 하부규정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선점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도 조속히 비준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EU FT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잘 준비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로 원산지인증수출자 등록 현황을 들 수 있습니다.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생산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수출자'로 사전에 지정이 돼 있어야 합니다. EU와 교역하는 기업이 약 8천2백여 곳인데 이 중 인증을 받은 기업은 8.5퍼센트인 7백여 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기업들의 준비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FTA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이해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이 수적으로는 전체의 8.5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교역 규모는 전체의 55퍼센트에 이릅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직원들이 일일이 기업을 방문해 인증을 받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등록 절차도 개선했습니다. 과거엔 업체별로 해야 했는데 이젠 품목별로 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의사결정권이 CEO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 효과만 강조되고 수입 효과는 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덜한 것이 사실이지만 수입 측면의 효과도 수출만큼 중요합니다. 기업은 관세 철폐로 수입원가가 떨어져 원가절감과 이익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입선 다변화도 노릴 수 있습니다. 현재 기계와 부품 산업은 대일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대지진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계와 부품 산업에서 유럽은 일본 못잖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EU FTA는 부품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U와 우리 모두 7월 1일 잠정발효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 날짜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U는 유럽의회 비준을 마치고 우리 측 비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하려면 4월엔 꼭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하부규정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입을 통해 소비자들의 편익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소비자들도 FTA 효과를 점차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정책의 관건은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칠레산 포도에 대한 계절관세가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칠레산 포도는 우리 농가의 포도 수확철에는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국내 포도농가도 살고 소비자들은 사시사철 신선한 포도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올초에 'FTA 비준 지원 실무추진단'이 출범했다고 들었습니다.

"한·EU FTA는 한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서의 협력과 조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 등이 참여한 'FTA 비준 지원 실무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비준 지원을 포함해 홍보와 보완대책 마련, 대책 이행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FTA 정책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처와 기관이 연관돼 있다 보니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협의회는 각 기관의 업무를 조정해 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EU FTA로 축산업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구제역으로 큰 피해를 입은 마당이어서 축산업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미 축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재정 지원과 세제 지원, 제도 개선 등 크게 세 가지 차원입니다. 재정적으로는 향후 10년간 2조원을 투입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영농상속공제액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현실화하고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의 환급을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번 구제역에 따른 대책은 별도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G

글·변형주 기자

"유럽 바이어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다"

7월 1일 비준 발효 맞춰 판매단가 등 재조정… 우리도 서둘러야

기업인들은 한·EU FTA 비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준이 안되면 어렵사리 찾아온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류만현 일심글로발 대표가 중소기업인들의 초조한 심정을 담은 글을 보내 왔다.

류만현 일심글로발 대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 같던 한·EU FTA 비준이 번역 오류라는 문제가 발생하며 그 일정이 지체되고 있다. 그간 알려졌던 7월 1일 비준 발효에 맞추어서 유럽 지역 바이어들과 새로운 가격협상, 납품일정 변경, 신제품 출시 및 마케팅 일정 등을 논의하며 많은 준비를 하고 있던 중소기업들에 가슴 졸이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예전의 기억을 돌이켜 보면, 7월 1일 비준 발효가 준수되지 못했을 때 또다시 새로운 비준절차를 마무리짓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비준 발효에 맞추어서 유럽 바이어들과 새로운 가격협상 등 많은 준비를 하고 있던 중소기업들은 일정이 늦춰질까 가슴을 졸이고 있다. FTA 비준은 연일 하락하고 있는 환율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 중소기업들에 이를 이겨내는 힘을 줄 것이다.

게다가 리비아 내전 등의 중동사태와 그에 따른 유가폭등, 그리고 일본 대지진 참사 같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다. 여기에 새로운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한·EU FTA 비준이 묻혀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EU FTA 비준일정이 지연되면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EU와 교역을 하는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이미 7월 1일 비준 발효에 맞추어 철폐되는 관세율을 감안하여 주문을 냈다. 이에 유럽 지역 바이어들은 현지 판매일정을 조절해 가면서 새롭게 제시한 가격에 맞추어 판매단가 및 계획을 세워 둔 상태이다.

만약 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 수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장 손해를 감수하고 가격을 다시 내려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아무리 우리 국회에서 문제가 생겨 비준일정이 늦춰지게 됐다고 양해를 부탁한다 한들 EU 지역의 상대 기업들에서 돌아올 답변은 "그것은 너희들 문제이고 그와 관련된 손해는 너희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말뿐일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각종 원자재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중이다. 지난해 여름 킬로그램당 1.6달러 수준이던 폴리에스터 원사 가격은 중동사태와 일본대지진 참사를 겪으면서 3월 말 현재 4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4월에도 추가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런 와중에 우리 국회에서 조속히 한·EU FTA를 비준하고 예정대로 7월 1일에 발효가 된다면, 중국 및 일본 제품들과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다. 관세철폐를 통해 상대적으로 가격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일 하락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FTA 비준은 예정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물가상승을 이유로 원·달러 환율 하락이 용인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FTA 비준은 환율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 중소기업들에 환율 하락 여파를 이겨내는 힘을 줄 것이다.

고환율·인플레 악재 속 새로운 모티브

대기업들은 현재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화려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절대다수의 수출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환율 하락 등으로 이윤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EU FTA 비준을 통한 관세철폐는 어려움에 처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것이다. 부디 번역 오류라는 이유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소망이 외면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G

경북 경산시에 소재한 일심글로발은 극세사 클리닝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전세계 35개국, 90여개 업체에 수출을 하고 있다. 최근엔 창문 청소 전문 로봇을 개발해 유럽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농업인들 곁으로 농협이 거듭난다

경제사업

신용사업

농업인들의 17년간의 숙원이 풀렸다. 농협법이 개정된 것이다.
농업인들에게는 더 나은 소득을,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더욱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자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농협 산하에 농산물 판매와 유통, 가공을 영위하는 회사도
생겨난다. 고도의 전문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그 효과를 인정받은 협동조합 개혁방안이다.
농협과 정부는 2012년 3월 새롭게 출범하는 농협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준비작업에 굵은 땀을 흘리고 있다.

일러스트 : 유재민

허재성 기자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1가에 있는 농협 중앙회 건물. 농협중앙회는 1중앙회와 경제사업, 신용사업을 각각 전담하는 2개의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된다.

'개혁 씨앗' 17년만에 알곡 수확

지주회사로 개편… 금융·유통 쌍두마차로 농업인 보호

농협법이 개정됐다. 농협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17년 만이다. 이번 개정 농협법의 핵심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농협은행과 하나로마트의 경영을 떼어놓는 것이다. 회원조합과 농업인들의 권익을 보다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농협중앙회에 새로운 50년의 발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농협중앙회(이하 중앙회)의 사업구조가 개편된다. 금융사업인 신용사업과 농축산물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는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중앙회를 1개 중앙회 아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전담하는 두 개의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29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같은 달 31일 공포됐다. 시행은 2012년 3월 2일부터다. 이번 개정법은 중앙회가 '회원조합과 농업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961년 기존의 농협과 농업은행을 통합해 설립된 중앙회는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과 은행업을 수행하는 신용사업과 보험사업, 지역 농협에 대한 교육과 지원 등 협동조합의 거의 모든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를 통해 농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지역농협서 생산한 농산물 시장지배력 확대

하지만 언제부턴가 중앙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등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농협개혁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핵심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분리였다. 신용사업 등 수익사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회원조합과 농업인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법은 농협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지 17년 만에 이뤄낸 과실이다.

먼저 조직 체계가 재편된다. 기존의 1중앙회 체제를 1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등 2지주회사로 전환한다. 사업 영역별로 경영을 분리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중앙회는 지주회사에 지분을 출자하며 협동조합 고유 사업인 조합과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지도 등을 수행한다.

중앙회와 기존 자회사가 담당하고 있던 농산물 판매와 유통, 가공 등 경제사업을 묶어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출범한다. 농협금융지주회사는 농협은행과 농협생명, 농협손해 등 금융 자회사를 산하에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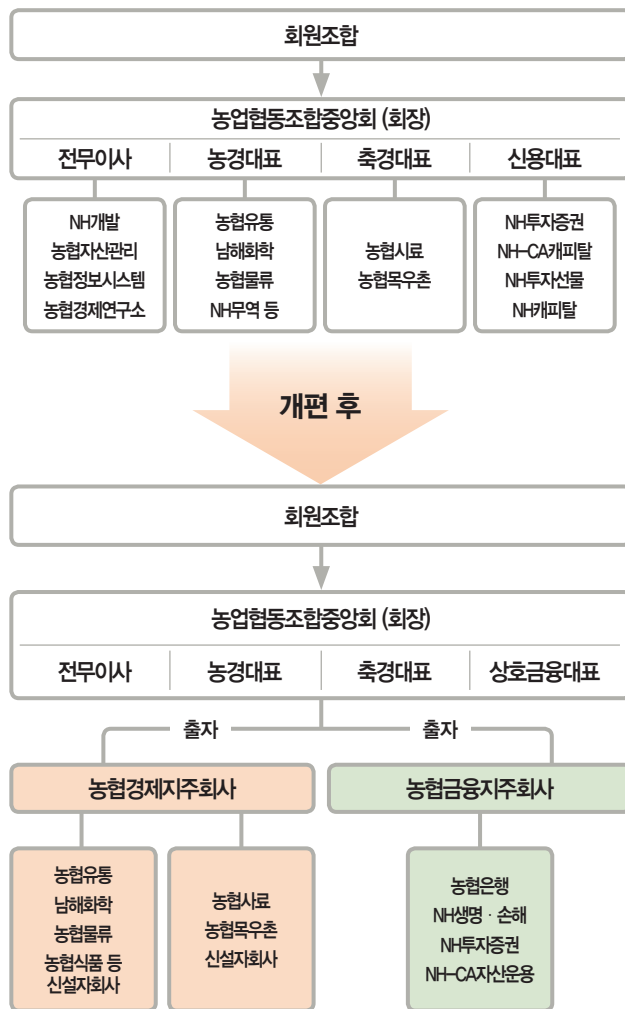
경제지주회사는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유통을 주 업무로 한다. 지주회사는 지역 조합에서 위탁한 농축산물 등의 판매를 책임진다. 이를 위해 전문 판매조직과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역별 조합별로 따로 판매하던 것을 지주회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시장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주회사 전환으로 인한 부족 자본금 등은 정부서 지원

가격경쟁력을 높여 농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농산물의 수급조절, 계약생산, 공동출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격 조절 능력이 생겨 농산물 가격 변화에 따라 시름하는 우려를 줄일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은행과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 신용사업을 분리해 신설되는 농협은행은 지금까지처럼 일반은행 업무와 농업금융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새로운 농협이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자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이 자체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모자라는 금액은 정부가 채워줄 수 있다. 조세 부문에서도 혜택을 준다.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납부하고 있는 세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법인 설립 등록세 등 개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8천억원(중앙회 추산 금액)의 세금은 감면해 준다.

개정안은 1년 후인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그때까지 정부와 중앙회는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본부'를 설치해 농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각종 정부지원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의견 수렴 및 자문을 위하여 정부와 학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업구조개편준비위원회'와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 등을 4월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또 중앙회의 법인 분리를 위한 자산실사, 인력 재배치, 지주회사의 사업계획 수립 등 실무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G

글·변형주 기자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7일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에서 제82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가진 뒤 매장을 찾아 장 보러 온 주부 등 시민들과 대화를 하며 물가점검을 하고 있다.

"농협법 개정은 농업사에 큰 획을 긋는 일"

이명박 대통령,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일자리·친서민 정책 등 다양한 국민생활 이슈를 다루는 제82차 국민경제대책회의가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민경제대책회의는 농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농업이 우리의 경제생활 중심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회의 장소를 농협하나로클럽으로 선택했다.

다양한 경제와 생활 이슈들이 논의되는 제82차 국민경제대책회의가 4월 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에서 개최됐다.

국민경제대책회의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사령탑 역할을 하기 위해 2009년 1월 출범했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2010년 9월 2일부터 명칭을 바꾸어 가동해 온 것. 매주 목요일 오전 열려 왔으며 국민과 정책수요자들 간의 소통이 강조돼 가급적 미소금융, 중소기업 등 의미 있는 현장에서 개최돼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윤증현 기획재정부·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안정대책'과 '해외곡물자원 개발·확보전략'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보고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쌀·배추·마늘·사과·배·돼지고기·닭고기·계란·명태·고등어·오징어 등 11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해외곡물

생산 기반을 확보, 오는 2015년까지 4백만톤 규모의 해외곡물 유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산물은 단기전략도 필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장기전략도 중요하다"며 "곡물자급률을 50퍼센트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외곡물자원 개발을 종합적·전략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의 유가를 비롯한 각종 물가상승을 언급하며 "정부도 생산자도 소비자도 함께 힘을 모아 물가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성공적으로 극복했듯이 물가문제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4일 제6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도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곡물 자급률 50퍼센트까지 높일 전략 검토

"지난주 청와대에서 농협법 개정법률 공포안 서명식이 있었다"는 소개로 연설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행사를 한 것은 개정농협법의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농협법 개정이 "지난 2008년 12월 새벽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지방에서 올라온 농민들에게 '농협은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한 말을 실현한 것"이라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반발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발목을 잡혀 온 농협법 개정안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우리 농업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여야가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고, 여러 이해당사자들도 협력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농협법 개정을 위해 애쓴 국회의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정해걸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지역 조합장들과 농민단체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농민은 앞으로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과 판매는 농협이 책임지는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 이 대통령은 "농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라 농업생명공학의 발달로 유망한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21세기 농업은 관광과 체험, 레저, 예술까지 결합된 복합문화 산업이자 지식기반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농민과 정부가 서로 합심하면 우리 농업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 정부는 농민과 함께 협력해 도시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활기찬 농촌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농축수산물 품목별 가격 안정 대책

쌀은 공매 등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0년산 보유곡 10만톤을 공매한다. 2009년산도 단체급식 업체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판매해 유통질서 문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배추는 올해 하우스배추 면적이 평년보다 55퍼센트 증가해 4월 중순 이후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4월 중순까지 정부와 농협이 보유 중인 배추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마늘은 올해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7퍼센트 증가해 햇마늘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6월부터 가격하락이 전망된다. 비축재고 방출과 병행해 할당관세 물량을 탄력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과실은 추석 전까지는 제한적 수요로 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중에 농협이 보유 중인 사과와 배 1만5천톤 조기 방출을 추진한다.

돼지고기는 구제역이 진정되고 있으나 단기적인 공급여건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를 고려해 할당관세 물량 11만톤(삼겹살 6만, 육가공원료 5만)을 도입하고 양돈산업이 조기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닭고기와 계란은 한파로 입식지연과 공급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닭고기 5만톤, 산란용 닭 1백만 마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종계의 시장물량을 46만 마리에서 66만 마리로 늘리기로 했다.

명태는 지난해 확보한 원양쿼터를 차질 없이 도입한다.
어획이 부진한 고등어는 6월까지 할당관세 물량을 무제한 선착순 방식으로 도입하며 수협을 통해 할당관세 일부 물량을 들여와 대형 유통업체에 직접 공급한다.
오징어는 원양산 오징어의 시장공급이 확대되도록 원양선사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안정대책에 따라 4월 이후 작·어황이 부진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품목별 가격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후변화 등에 따른 이상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에 대비해 농업관측 시스템을 강화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수급과 가격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계획이다. G

글·박경아 기자

염동우 기자

국내 최초의 전국 단위 농산물 브랜드인 'K멜론'은 매뉴얼화된 생산과 체계적인 마케팅을 통해 단기간에 시장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다. 사진은 경북 고령군 농산물유통센터의 K멜론 포장작업 장면.

국내 첫 전국대상 농산물 연합브랜드 'K멜론'

값 올렸는데도 더 잘 팔리는 이유?

개정 농협법의 목표는 경제사업 활성화다. 농업인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가 산지유통에 직접 참여해 농업인의 이익에 유리한 판매조직을 만든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미 성공사례가 있다. 지난해 출범한 국내 최초의 전국단위 농산물 브랜드인 'K멜론'이 바로 그것이다. K멜론은 한국형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는 출하가격이 20퍼센트 정도 올랐습니다. 멜론은 더 높죠. 30퍼센트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농가소득이 증가했죠."

이경환 고령군 농협연합사업단 마케팅 상무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협이 시행하고 있는 '연합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농협의 연합사업은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를 묶는 사업방식이다. 규모를 키워 시장에 대한 교섭력을 높여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파종부터 수확 시기까지 생산기준을 통일하고 출하도 농협이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브랜드도 같다.

이 상무는 "연합사업에 대한 농가의 참여 열기가 높다"며 "현재 본격적으로 출하하고 있는 멜론의 경우 단가가 연합사업 전보다 30퍼센트나 올랐으며 품질관리를 좀 더 강화해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에는 1백40여개의 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출범한 브랜드인 'K멜론'이다. 출하가격이 전에 비해 평균 28퍼센트나 오르는 등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냈고, 국내 최초의 전국 단위 농산물 브랜드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혼자'가 아닌 '여럿'의 힘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K멜론에는 현재 23개 지역 농협의 1천2백여 멜론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K멜론의 성공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치밀한 전략이 어우러진 결과다. 본격 출범하기 전 준비기간만 1년이 걸렸을 정도로 탄탄하게 준비했다. 먼저 품목선정에 공을 들였다. 시장조사를 통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골랐다. 안재경 농협중앙회 멜론전국연합사업단장의 설명이다.

"멜론을 선정한 것은 시장 규모가 작은 데다 전체 생산량의 상당 부분(66퍼센트)이 농협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재배방식을 시스템화하기 용이합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품질관리가 뛰어난 제품을 선호하는데 시장이 너무 크면 재배방식을 통일하기 어렵습니다."

전국 23개 지역농협 1천2백여 농가가 참여

참여 농가를 선정하는 데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K멜론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이 제시한 생산기준과 전략에 동의해야 한다.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만큼 참여 농업인 모두가 '정예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단은 전국을 돌며 2천7백여 멜론 농가를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절반 수준인 1천2백87곳의 농가를 참여시키는 데 성공했다.

안 단장은 "전에는 멜론 가격이 수급에 따라 널뛰기를 해서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했다"며 "K멜론은 농가별로 파종시기와 수확시기를 분배하고 농협이 유통업체와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어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철저한 품질관리도 성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사업단은 공동의 재배 매뉴얼을 개발해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농가는 매뉴얼에 따라 재배일지를 기록하고 사업단은 이를 꼼꼼하게 관리한다. 출하할 때는 공동선별 작업을 거친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품의 등급이 정해진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 높은 가격에 유통돼 신뢰를 잃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ERP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이력을 유통업체에 공개해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다졌다.

품질관리에 농협과 농업인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소비자들은 더 맛있는 멜론을 안정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게 됐다. 멜론은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니 가격이 비싼 시기에는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조기 수확하는 일이 빈번했다. 반대로 공급이 모자라면 턱없이 비싼 가격을 감수해야 했다. 안 단장의 설명이다.

"산지에서 판매가격이 28퍼센트 올랐다고 하면 그만큼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는 오해입니다. 산지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소비자가격은 별 영향이 없습니다.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해 유통마진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농가는 소득이 오르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멜론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염동우 기자

K멜론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제품의 질을 향상시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업단 측은 K멜론이 국내 멜론 시장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멜론 시장은 멜론의 품질이 들쭉날쭉해 시장을 넓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멜론은 단체급식소, 뷔페식당 같은 곳에서 소비되는 과일로 취급을 받았다. 사정이 이러니 재배량도 늘지 않았다. 하지만 K멜론이 시장에 안착하면 멜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소비량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엄격한 품질·출하관리로 소비자가격도 안정

수출길도 열릴 전망이다. 멜론은 수출에 유리한 과일이다. 수확 후 신선도가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다. 시장도 크다. 특히 말랑말랑한 과일을 선호하는 일본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합리적인 가격에 수출한다면 승부를 걸어 볼 만하다.

안 단장은 "현재 멜론 품종의 대부분이 일본산인데 우리 기후와 토질에 맞는 품종과 재배법을 개발하고 가공 상품을 확대하면서 멜론의 상품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TV 광고 등 홍보를 강화해 국산 멜론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G

글·변형주 기자

조선DB

〈쓸쓸한 촌〉
사람들이 다들
도시로 이사를 가니까
촌은 쓸쓸하다
그러면 촌은 운다
⋮
촌아 울지 마

–1999년 전북 임실군의 운암초등학교 마암분교생이 쓴 동시

"이제 농사에만 전념하면 되는거죠"

농업인을 위한 '진정한 협동조합' 정체성 회복에 기대감

"농민을 위해 태어난 농협이라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에 몰두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걔들은 돈놀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경제사업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니깐. 걔들은 믿을 수 없어.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사라진 지 오래됐다니깐."

지난 3월 전북 완주에서 만난 한 농민이 농협을 강하게 질타했다. 농협은 본연의 업무인 경제사업보다는 소위 장사가 되는 신용사업에 치중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런 가운데 지난 3월 4일,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협 본연의 업무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정안이라고 정부와 국회는 설명하고 있다.

농민단체 최대 조직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새로운 출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농업인들은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와 열악한 농산물 유통구조 속에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되기 위해 농협중앙회의 판매·유통사업 활성화를 염원해 왔다"면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이번 농협법 개정으로 신용사업에 종속적인 경제사업의 50년 역사를 단절하고 자체자본금을 통해 독립된 의사결정과 사업을 구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큰 틀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현장 농민들도 농협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농민들은 앞으로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하면 되는 거죠? 생산한 농산물, 농협이 알아서 잘 팔아주는 거죠?", "그동안 농산물 헐값 판매 등으로 농민들이 얼마나 피해 봤는지 알죠?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등 농협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지주회사 체제는 조합원칙에 어긋나" 일부 반론도

농협법 개정으로 농민들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만큼 향후 자본금 배분 등 후속조치가 더욱 중요하게 됐다. 올해 하위법령 개정 및 조세제도 개편, 농협중앙회 자산실사를 통한 부족자본금 지원 및 자본금 배분, 농협중앙회 내에 사업구조개편준비위원회, 경제사업 활성화위원회 등의 과정이 진행된다.

하지만 모든 농민이 농협법 개정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번 개정 농협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법 개정의 목표인 경제사업 활성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주회사 체제가 농민,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경제사업의 이익을 내기 위해 수입 농산물 유통에 앞장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지난 4일 국회를 방문, "농협마저 자본에 준다면 농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 법을 통과시키느냐"며 "지주회사 체제는 협동조합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G

글·이현우 (한국농어민신문 기자)

국회 상임위 한뜻 모아 만장일치 통과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법 개정의 주역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3월 11일,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농협법 개정 과정은 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이번 경험이 다른 사회 갈등 해결에도 널리 적용되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환영 논평을 냈다.

이 논평에서 김 대변인은 농협법 개정에 단위조합장 등 농업인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쳐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의 성숙된 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 최인기·한나라 정해걸 의원 법안 통과에 큰 공

이명박 대통령도 3월 17일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언급, "농협법(개정)은 역사적"이라고 높게 평가하면서 최인기 국회 농수산식품위원장(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에게 전화를 걸어 사의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신경(信經)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의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법안 통과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성숙한 태도를 높이 산 것이다.

조선DB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공포안에 서명하고 있다.

농협법 개정은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대책과 관련해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개정안 통과까지 17년을 끌어올 정도로 법 개정의 난항을 겪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법 개정이 추진돼 왔었다.

이 지난했던 농협법 개정을 성공시킨 주역들은 누구일까.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5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야 정치권의 다툼에만 익숙해 있던 국민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 신선한 충격을 이끈 이가 최인기 의원이다.

농협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시기가 최 의원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지난해 6월부터라는 데 토를 다는 사람은 없다. 최 의원의 농협 개혁과 관련된 평소 지론은 농협에서 금융 부문을 따로 떼어내는 게 아니라 농산물 유통사업 강화 등 경제사업 부문을 어떻게 살려나갈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농림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경험이 그런 지론의 바탕이 됐다. 최 의원은 농협중앙회 부족 자본금에 대한 재정 지원, 세제 지원과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 조항,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재부 등 정부 관련 부처 장관과 여당을 상대로 설득하는 데 앞장섰다.

농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맡았던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도 빼놓을 수 없는 주역이다. 정 의원은 부족 자본금 지원, 세제 감면에 난색을 표하는 정부 관련 부처를 설득해 태도를 돌려놓았다. 여야 간 정부부처와 국회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그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개정안 통과 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등 조정 역할을 한 청와대 백용호 정책실장, 이동우 정책기획관 등도 법안 통과의 주역으로 꼽힌다. G

글·김성동 기자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경제사업 중심으로 바꾼 게 개정 핵심”

조선DB

최인기 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의 의의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제대로 된 농협 개혁의 청신호를 쏘아 올린 점”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인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지난 3월 29일 청와대를 방문했다. 농협법 개정안 공포안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법 개정 공포안 서명식에 야당 소속 의원이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개정됐다는 점에서 농협법 개정 과정 자체가 개혁 입법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일종의 사건이라 불릴 만하다.

‘개혁 입법의 모범 사례’를 만든 중심에는 최인기 위원장이 있다. 최 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와 관련 “금융 중심의 돈 버는 농협에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 그 이익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으로 변화한 것이 농협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법 개정 의의에 대해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법 조문화,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과 조세감면, 보험특례, 모든 경제사업의 경제지주로의 일원화를 정부가 수용하고 여야가 합의해 제대로 된 농협 개혁의 청신호를 쏘아 올린 점”이라고 말했다.

농협법 개정의 성과는 무엇인가.

“1중앙회 2지주(경제, 금융)로 분리하여 전문화, 독립화함으로써 책임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농협중앙회 설립 50년 만에 법에 책무를 부여해 농산물 판매와 유통 중심의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는 게 큰 성과다.

최대 18조원으로 추정되는 농협중앙회 자본금의 30퍼센트 이상을 경제사업에 배분하게 함으로써 정부 지원 없이도 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농협법 개정안 중 경제사업 활성화 부문을 법조문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 주요 내용과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이 갖는 의의를 말해 달라.

“농협중앙회에 회원조합 등의 경제사업 활성화 의무를 부과했다. 지역농협 등에 대해 농산물 공동출하와 판매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의무를 부과한 점도 의의가 크다. 중앙회에 판매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판매조직 확보 등의 의무 부과도 성과라고 본다.”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 조세지원, 보험특례 등이 자칫하면 농협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부족자본금을 지원하되 농협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부족자본금 지원을 위한 계획서도 2012년 예산안 제출 전 국회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17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된 농협 개혁이 좌초되지 않도록 법안심의 과정에서 농민과 농협 그리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담보하는 농업이 보호와 육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농협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데 모든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주어야 한다.”

최 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정부, 농협 간에 큰 이견이 있어서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면서 “부족자본금 지원, 조세감면 등과 관련한 이견으로 법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언론과 청와대 그리고 한나라당 지도부 등에 대한 다각적인 설득을 통해 정부가 국회의 요구를 수용키로 하면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G

글 · 김성동 기자

정해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

"초당적 협력이 만든 상생정치의 모델"

지난 3월 4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하기 직전까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 일각에서까지 농협법 개정안의 여야 만장일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확신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농협법 개정안이 2009년 2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몇 차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거쳤지만 예산안 파동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14개월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정해걸 법안소위 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가 열리기 전 개정안 통과를 자신했다.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야당 의원은 물론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두루 접촉해 온 정 위원장은 "정부와 농협단체는 물론 야당과도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 주요 쟁점에 대한 조율을 마쳤다.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경제사업 활성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집중 논의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이 자신했던 대로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를 넘나들며 보여준 분주한 움직임이 정 위원장 자신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역사적 현장'의 주인공으로 만든 것이다.

정 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경제사업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변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을 마련하면서부터 농협의 개혁이 논의됐다. 개정까지는 17년이 걸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농업 사업구조 개편은 그동안 기득권과 정치권 등 이해관계가 엇갈려 결실을 맺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신경분리위원회까지 구성하고도 정부안만 확정한 채 마무리 짓지 못했을 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법안이었다."

농협법 개정의 일등공신으로 꼽히고 있다. 여야 간, 국회와 정부 간 어떤 조정에 힘을 썼나.

"1994년부터 시도된 과제인 만큼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하려고 했다. 일등공신이라지만 나 혼자서 한 일은 아니다."

조선DB

정해걸 의원은 농협법 개정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를 넘나들며 조정자 역할을 자임, 여야 만장일치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데 일등공신이 됐다.

농협 개혁의 단초를 마련했다. 보람은?

"농민단체, 정치권, 정부 간의 갈등으로 17년간 끌어온 농협구조 개편을 여야 간 만장일치로 마무리하게 된 것을 보람으로 느낀다. 1년 이상 지속된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최선의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도 보람이다."

여야 간 쟁점 사안들을 어떻게 타결했나.

"사업구조 개편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자본금 지원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청와대 등과 조율하여 농식품부 예산 삭감 없이 필요 자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교역할을 했다."

농협법 통과 후 청와대는 상임위에서 여야 만장일치 통과 등을 들어 통합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렇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농협법 개정 과정은 우리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초당적 협력 사례로 새로운 상생정치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G 글 · 김성동 기자

숱한 실험… '협동조합+자회사'로 진화

자회사 통해 단순 농산물 판매조직에서 가공·유통 등 비즈니스 조직으로 발전

유럽의 협동조합들은 자회사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개정 농협법의 구상과 일맥상통하는 형태다. 협동조합 자회사들은 농산물 판매와 유통은 물론 금융업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식품 중에 요플레라는 브랜드가 있다. 요플레는 요구르트 분야에서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요플레는 단순한 상표명을 뛰어넘어 떠먹는 요구르트의 대명사로 통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조선DB

유럽의 협동조합은 자회사를 설립해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담당하며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사진은 프랑스의 밀 농장 추곡 모습.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요플레사(社)가 프랑스 협동조합(소디알 연합사업체)의 자회사라는 사실은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요플레를 생산하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협동조합들은 시장경쟁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며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선진 협동조합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협동조합 산하에 자회사나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플레와 더불어 고품질 와인, 치즈 등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프랑스의 협동조합들은 산하에 다수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전문화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사업상의 제약을 피하고, 생산을 효율화하며, 외부 자본조달이 용이해지는 등의 주식회사의 여러 장점을 협동조합 사업에 도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회사 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협동조합과 자회사의 중간단계에 지주회사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농협들은 자회사 체제의 도입을 통해 농산물의 단순 판매조직에서 벗어나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비즈니스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고부가가치 자회사 통해 승승장구

현재 프랑스의 농협들은 1천5백여 개의 자회사를 통해 자국 내에서 생산한 전체 농산물의 절반 이상을 취급하고 있다. 농산물 가공분야에서도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성공적인 조직으로 발돋움하면서 유럽연합 최대의 농업국인 프랑스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금융업에 있어서도 프랑스의 농협은행인 크레디 아그리콜(Credit Agricole) 그룹은 2001년 금융지주회사(Credit Agricole S.A., CASA)를 만들어 전문 금융자회사의 설립과 인수를 통해 BNP파리바 등과 자웅을 겨루는 프랑스 최대의 금융그룹으로 성장하였고, 농업금융의 안정화와 선진화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동조합과 자회사가 결합하는 양상은 독일의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다. 독일의 협동조합은 사업조직과 연합회 조직이 분리되어 있는 소위 이종결합(Hybrid)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중 사업조직은 지역조합과 중앙단위 사업체의 형태로 2단계로 구성되고, 중앙사업체는 지역조합이 출자한 주식회사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중앙사업체의 하나인 독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은 2009년 말 기준 자산규모가 독일 최대, 유럽 10위권의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하였는데, 이는 자회사 체제를 기반으로 전문 경영인에 의한 사업운영방식을 채택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프랑스 농협 연합사업체의 조직구조

대형 유통기업 압도하는 경쟁력 가져

네덜란드의 그리너리(Greenery) 농협은 네덜란드의 경매농협 9개가 합병하며 탄생한 협동조합이다. 유통자회사인 그리너리 BV 및 여타 자회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여 생산자 조합원에게 농산물 유통과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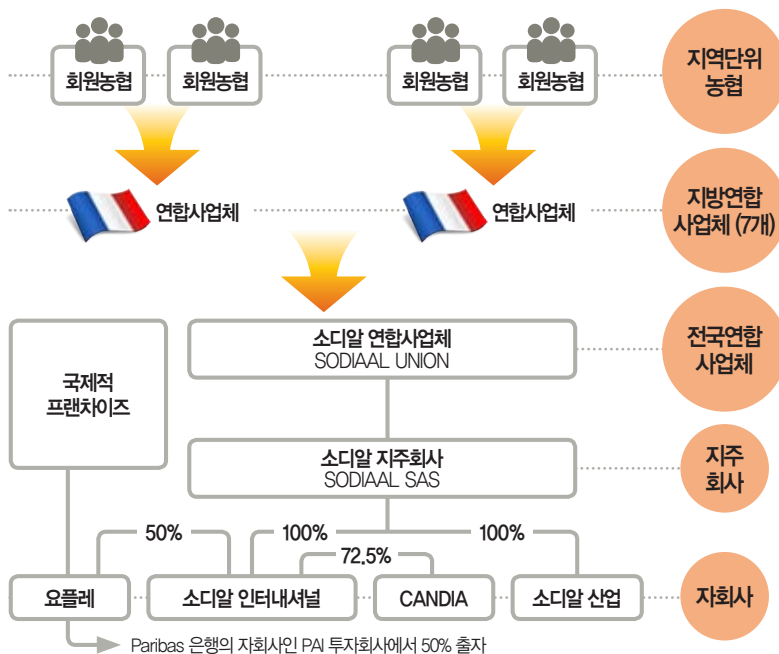
현재 그리너리 농협은 조합원과 대형 유통업체들을 아우르는 정보 및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최고의 공급망을 구축하여 유럽 전역에 네덜란드의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농축산물 생산부문에서도 전문 자회사 체제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덴마크의 데니시크라운(Danish Crown) 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데니시크라운 협동조합은 양돈 중심의 축산업 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 산하에 직접 10개의 자회사를 두고 축산물의 판매와 가공은 물론 도축기계 공급, 가죽 판매까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회사는 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으나 경영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자회사별로 이사회를 가지고 있어 자체 전략을 개발한다. 데니시크라운 협동조합은 전국 단위의 규모화와 자회사 체제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덴마크 축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농축산업 선진국의 협동조합은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와 조합원의 인적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협동조합 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를 실험하면서 진화해 왔다. 그리고 그 진화의 요체는 협동조합과 자회사 체제의 결합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의 본질은 조합원의 공동 소유와 민주적 사업운영을 통한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인적 결합체이다. 즉 자본 결합체인 주식회사와 구별되는 협동조합 정체성의 핵심은 지배구조의 민주성에 있다. 협동조합 지배구조의 민주성은 자본논리에 따른 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사회적 약자인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를 제고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에 기인한다.

시장경쟁 이겨낸 유럽의 경험 발전적 수용

그러나 협동조합의 인적 결합체적 특성은 자본결합체인 주식회사에 비해 소유와 배분의 불일치에 따른 인센티브 구조의 왜곡 및 조직의 유연성 저하를 초래해 의사결정의 지연, 효율성 저하, 외부자본 접근성 제약 등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 체제의 문제점은 구미의 협동조합에서도 제기됐다. 자회사 체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형태다.

협동조합과 자회사 체제의 결합이 조합원,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조의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협동조합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협동조합의 진화된 형태로 받아들여졌다.

최근 개정된 농협법에 따른 농협의 구조개편은 격심한 시장경쟁을 이겨내기 위한 구미 선진농협의 다양한 실험과 시행착오의 성과물을 발전적으로 수용한 협동조합 진화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G

글 · 박태영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원)

"이젠 농산물 제값 받나" 농업인들 기대감

농협 개혁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하지만 법과 제도라는 '틀'만으로 개혁이 완수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틀을 채우는 '살'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진수식을 마친 '개혁 농협호'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치밀하면서도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 할인점에서 쌀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로선 편리한 일이죠. 문제는 할인점에 진출하기 위해 지역농협들이 출혈경쟁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섭력이 없다는 의미인데요. 농협법 개정안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판매를 맡아준다면 교섭력도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협법 개정에 따른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농업인들이 이제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에 통과된 농협법개정안을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에도 이견이 없다. 개혁을 위한 큰 틀이 생겼을 뿐이고 틀을 채워 농협의 경쟁력과 농업인들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진짜 개혁'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먼저 지역농협과 중앙의 협력·조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새로운 체제가 도입되는 만큼 중앙과 지역의 관계설정, 역할분담, 책임과 권한을 분배하는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농협법 개정 이후의 핵심 후속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앙회가 지역농협의 규모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업구조 개편 이후에도 중앙은 중앙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사업을 하면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원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지주사는 산하에 품목별, 브랜드별, 지역별로 광역화된 자회사를 두고 해당 품목 농업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각자 분리돼 사업하던 지역농협을 규모화, 광역화해서 산지와 소비지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품목·브랜드별 지역농협 역량 강화 필요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지역농협의 역량 강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립 능력이 없는 읍·면 단위의 지역농협은 통합을 통해 투자 여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합병을 위한 자금 지원도 필요하다. 김 소장은 "지금처럼 중앙회가 지역농협의 손실을 지원하는 방식은 지역농협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적 관점에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혁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과제도 있다. 조합원들이 중앙회가 농업인들의 이익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한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 손 사무총장은 "개정법이 시행되면 경제지주사가 지역의 사업을 평가해서 관리하게 된다"며 "대농업인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익을 지속적으로 환원

조선DB

농협중앙회는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농축산물의 판매, 가공, 유통 등 경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은 영농법인 '새바람하트딸기'가 개발한 하트딸기.

하는 것이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화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협 조직 내부에서 혁신의 바람이 그침 없이 불어야 한다. 이에 대해 황의식 농협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같이 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했다. 황 연구위원은 "타성과 과거의 방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혁신 리더십이 중요한데, 필요하다면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양성에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 개혁을 성공시키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결국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의 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제사업에 우수인력 유인해야

농산물 유통, 판매, 마케팅 등 필요한 분야에 인력이 넉넉지 않다. 중앙회와 지주사의 직원은 물론 지역농협의 직원들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지주사 설립 시 경제지주회사로 우수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융지주 쪽으로 인력이 몰린다면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농협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사업 지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명감을 일깨우는 교육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기존 사례에 대한 분석과 연구도 요구됐다. 경제사업 개혁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다. 윤 교수는 "연합마케팅, 산지법인화 등 시범적인 사업이 있다"며 "이 사업들의 성과와 어려움을 분석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번 농협법 개정은 농협 개혁의 출발선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기대 역시 컸다. 농업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여겨진다. 수입농산물 시장의 개방과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 등으로 신음하던 농촌 경제에 활력이 생길 것이란 얘기다.

김 소장은 "EU는 이미 하나의 큰 자유무역협정(FTA) 지역으로 농업에 정부가 지원할 방법이 많지 않아 협동조합 등 민간을 통해 농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도 개정 농협법에 따라 농협이 경제사업 활성화에 나선다면 FTA 시대에 대응할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개정 과제도 제시됐다. 먼저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강구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현재 지역농협의 신용사업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윤 교수는 "신경분리에 따라 신용사업이 분리됐는데 형식적으로만 협동조합 소속이고 실제로는 농업과 거리가 멀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상호신용조합을 묶은, 금융지주사와 별도의 상호신용금융연합회를 조직해 지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향후 이를 지원할 법적 장치를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G

글·변형주 기자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에서 언급한 농업인 안홍석 씨

좌절 않고 밤낮 연구… 최고 당도 기술 터득

경북 영천에서 용수농원을 운영하는 안홍석 대표가 화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농협법 개정의 의미와 정책방향을 전하는 라디오연설에서 그를 새로운 농업의 모범사례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안홍석 씨는)좌절하지 않고 유기농법을 익히고 밤낮으로 연구한 끝에, 당도를 최고로 높이는 기술을 터득했다"며 "지금은 한 해 1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배즙까지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한다"며 안 대표의 더 큰 성공을 기원했다.

사실 안 대표는 배농사 부문에서는 이미 유명인사다. 농사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귀농해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농사의 부가가치를 크게 높였다. 먼저 친환경 재배법을 개척해 2002년 국립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을 받았다.

그가 개발한 발효퇴비를 자양분 삼은 용수농원의 배는 당도가 높아 일반배보다 훨씬 비싸게 팔린다. 안 대표는 "용수농원의 배는 전량 인터넷 직거래로 판매된다"며 "가격은 지난 10년을 평균하면 일반 배보다 10배가량 비쌌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농업인이지만 '특허 벤처인'이기도 하다. 2003년 대구대 한의대와 배즙을 공동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가공 상품인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불문가지. 국내에서만 판매하던 것을 지난해부터는 미국에 수출도 하고 있다. 올해는 캄보디아로 시장을 넓혔다.

농기계도 개발했다. 승용차에 앉아 풀을 깎는 '승용예초기', 큰 경운기를 작게 개조한 '미니경운기', 배나무 크기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층계식 작업대'를 스스로 개발했다. 이 가운데 승용예초기는 실용신안특허를 획득했다.

지난해부터는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으로 농원 안에 환경농업교육장을 열고 친환경 배농사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안 대표는 "우리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배산업이 발전하기 어렵다"며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용수농원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학생들에게 충실히 전수해 한국 배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농업인 · 소비자 모두 '윈윈' 할 겁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인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을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선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윈-윈 개혁'을 성공시키겠다는 다짐이었다.

농협중앙회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협법 개정은 농업인에게 더 큰 실익을 주는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단의 산물"이라며 개정 취지가 잘 살아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은 지난 17년간 농협개혁을 둘러싼 논의를 매듭짓고, 농업인에게 더 큰 실익을 주는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단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3월 31일 공포된 농협법이 농업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도 중앙회가 지주회사를 1백퍼센트 지배하고 감독해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농업인들이 제 값을 받고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판매 중심의 농협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사업구조 개편을 하면 농업인과 소비자에게는 어떤 실익이 돌아갑니까.

"사업구조 개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농산물 판매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판매사업, 즉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면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농업인은 농가소득이 높아지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이 궁금합니다.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의 기본 방향은 농산물 유통을 계열화하고 규모화하여 전국단위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산지유통에 역점을 두고 경제지주와 농·축협의 공동출자를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과 같은 조직을 육성하고 전문화시킬 것입니다. 도단위는 물론 전국 단위 판매조직과 유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도매유통을 확성화할 계획입니다.

소매유통은 TV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경로를 구축하고, 농축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식품가공 사업 진출도 본격화할 것입니다. 논밭에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유통만큼은 농협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조합이 경제지주에 종속되거나, 조합사업이 경제지주와 경합할 수도 있다

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지주회사의 사업은 조합의 경제사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경제지주는 대규모 농자재 회사의 운영, 전국 단위 농축산물 유통 등 개별 조합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주로 취급하게 됩니다. 이는 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지주회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수익 위주의 경영에 치우칠 것이란 우려는 기우입니다.

경제지주의 궁극적인 주주는 농업인과 조합이며, 중앙회가 경제지주를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경제지주사가 농업인과 조합의 이익에 어긋나는 사업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지주 역시 주주인 농업인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는 이익을 명칭사용료와 배당을 통해 중앙회로 이전하고, 중앙회는 이것을 농업인 지원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금융지주는 농협의 수익센터 역할을 지속함으로써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지주회사의 발전을 위한 계획도 구상하고 계실 텐데요.

"내실경영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인수합병 등 외형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농협은행은 전국적인 점포망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공공금융 부문의 강점을 유지하고 보험사는 출범 초기인 만큼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영업기반 구축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최 회장은 전국 단위 판매조직과 유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서 도매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 반여동의 농산물도매시장.

경제지주의 주주는 농업인과 조합이며, 중앙회가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경제지주사가 농업인과 조합의 이익에 어긋나는 사업은 하지 못합니다. 금융지주도 이익을 명칭사용료와 배당을 통해 중앙회로 이전하고, 농협의 수익센터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부족자본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한집에 살던 식구들이 분가할 때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중앙회의 사업을 분리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자본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산물 유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유통시설 구축에 상당한 자본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향후, 중앙회 자산실사 결과와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등을 고려해 정부의 자본금 지원 계획이 수립되면, 개정 농협법에 명시된 것처럼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201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것입니다."

세금감면 혜택도 있지요.

"사업구조가 개편되면 이전에 없던 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개편단계에는 신설법인의 등록세를 비롯하여 일시적인 세금이 8천억원 정도가 생기고, 개편 후 운영단계에서는 농업인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주회사 수익금의 이전이나 배당 등의 과정에서 매년 4천억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세금감면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여러 차례 지원의지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2년 3월 2일 새 농협이 출범합니다. 준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농협법 개정취지를 잘 반영하고, 실무작업에 한 치의 착오도 없어야 내년 3월에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농협법은 사업구조개편 준비과정에서 정부와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사업 구조개편준비위원회'와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 등을 이달(4월) 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실무작업으로는 중앙회의 법인 분리를 위한 자산실사, 인력 재배치, 지주회사의 사업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다소 빠듯한 일정이지만 2012년 3월 2일, 새로운 중앙회와 지주회사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G

글·변형주 기자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모두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공감 이뤄 합의"

'농협법 개정안'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개정안과 관련된 이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결실이다. 각각의 목소리를 내던 농민단체와 농협, 정부, 국회의 합의를 이끌어 개정안 통과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이다.

염동우 기자

김재수 차관은 이번 농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17년 만에 이뤄진 합의의 결실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성장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17년 만의 결실입니다. 여러 여건으로 보아 '지금 아니면 물 건너간다'는 절박함에 관계자 모두 공감한 결과라고 봅니다."

지난 3월 11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의 숨은 조역이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1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켜 반드시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농협법 개정안이 올 3월 통과되지 못할 경우 4월 이후 국회의원 보궐선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정치일정으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며 농협법 개정안 관계자들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민주당)과의 특별한 인연도 여야 합의와 상임위 통과의 밑거름이 됐다"고 털어놓았다.

행정고시 21회(1977년) 출신인 김 차관은 1978년 국세청, 농수산부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관으로 '농수산'과 인연을 맺은 뒤 농림수산식품부의 식량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시장과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고 농촌진흥청장을 거쳐 지난해 8월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에 임명됐다.

김 차관이 시장과장을 맡았던 1995년 7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 전 품목에 대한 상장제 실시로 상인들의 반발을 사 시장 내에서 큰 소란이 벌어졌다. 당시 농림부 장관이 최 위원장이었는데, 시장상인들을 설득하고 사태 수습에 함께 머리를 맞댔던 두 사람이 이번에는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다시 만나게 됐으니 '서로 공감'을 이룬 것이다.

17년간 못 이룬 합의를 어떻게 도출해 내셨습니까.

"그동안 농민단체·농협·정부·국회 모두가 어렵게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됐던 과거 정부의 전철을 다시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농업의 어려움을 농협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했습니다.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기반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 농협을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고 유통체계 개선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합의가 무산된 가장 큰 걸림돌이 자본금 조달문제였습니다.

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차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를 설득하고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 만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한 농협 지원 발언 속기록까지 보여주며 설득해 어렵사리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상임위 통과 전날 밤에는 혹시라도 가까스로 이룬 여야 합의가 무산될까 봐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농민들 역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개혁이라는 목표를 위해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여주어 17년 묵은 농업계 숙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왜 중요한가요.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 농촌과 농업의 어려움을 농협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만들어나가는 기반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 협동조합의 고유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농협을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고 유통체계 개선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농협개혁이 절실했습니까.

"농협이 그동안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했고 한국 농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간 비리 발생과 도덕적 해이가 지속돼 농협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효율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돼 왔습니다. 또 신용사업 등 수익사업에 치중하여 농축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1961년 설립된 농협중앙회는 임직원 수가 현재 2만3천명에 이르는 비대조직으로 성장했고 이 중 농협은행 부문이 1만7천명(74퍼센트) 수준을 점유하는 기형적인 조직으로 변모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농협법 개정이 17년간 표류한 사실에서 보듯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경제·신용·공제사업을 하나의 조직에서 수행하는 '종합농협' 체제인 우리의 농협은 해외사례와는 협동조합 발전의 역사가 다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그러나 가야만 하는 길'을 선택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이러한 부담 앞에 관련자들이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농협, 농민단체, 국회 모두가 농협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분리방식, 자본금 배분 등 방법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어 이를 조정하고 입법화하는 과정은 다른 입법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농업계 내부는 중앙회, 일선조합, 농업인단체, 학계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외부는 보험사·설계자 등 국내 보험업계, 그리고 외국 보험사 등의 이해가 복잡하게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년 3월 시행까지 남은 일정은.

"농협개정안 시행까지 이제 일 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 중앙회의 자본금 배분과 정부 지원 규모 등이 결정돼야 합니다. 농업 경제사업 활성화계획과 자본금 배분은 농협, 농업인단체, 학계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족자본금 규모가 나오면 기획재정부 등과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 자본지원계획서를 마련, 2012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 자본금 지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해 이를 위한 준비도 시급합니다. 시행은 내년 3월이지만 준비에 충분한 시간은 아닙니다. 내년 3월 신설법인 출범까지 농협은 물론 정부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G

글·박경아 기자

국민 그리고 농업인에게 한 발 더!

글과 그림 · 정광숙

정부포상 국민추천제

숨은 유공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합니다

각계각층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숨은 유공자들을 국민들이 직접 추천하여
포상하는 정부포상 국민추천제를 실시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의로운 행동**을 하거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웃을 돕고 선행을 실천**하는 등
주변에 큰 **감동과 희망을 준 사람**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기간 | 2011년 연중

추천방법 | 인터넷, 전자우편, 일반우편

인터넷 www.mopas.go.kr 접속
「국민추천포상 접수창구」 접속 → 추천서 작성 · 저장

전자우편 추천서 작성 → 전자우편 발송
보내실 곳 sanghun114@korea.kr

일반우편 추천서 작성 → 일반우편 발송
보내실 곳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추천서 서식은 인터넷 **국민추천포상 접수창구**에서 다운로드 또는 읍 · 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비치 (www.mopas.go.kr)

포상시기 | 2011년 6월, 12월 예정

단, 6월 포상은 4월 6일 접수분까지를 대상으로 함

그래요, 여러분에겐 꿈이 있어요

가수 인순이, 4백석 작은 무대에서 장애인을 위한 큰 공연

염동우 기자

가수 인순이는 이날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댄스 실력을 뽐냈다. 남성 아이돌 가수 샤이니의 '링딩동'을 부르며 파워풀한 댄스까지 선보여 공연장이 후끈 달아올랐다.

'거위의 꿈'을 불러 많은 이에게 희망을 전해준 가수 인순이의 자선공연이 최근 서울 개봉동의 한 교회에서 열렸다. 지적장애인들을 후원하기 위한 행사였다. 인순이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화려한 댄스실력, 그리고 그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노래로 장애인과 일반인이 하나가 되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지난 4월 5일 저녁 7시30분, 서울 구로구 개봉동 남현교회에서 가수 인순이의 자선공연이 열렸다. 15명의 중증 지적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좋은친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후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였다. 이날 공연장에는 인순이를 보기 위해 온 4백여 명의 관객이 좌석을 가득 메웠다.

센터를 운영하는 김정임 원장은 인순이와 초등·중학교 동창이다. 친구가 장애인 보호시설을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인순이가 먼저 자선공연을 제안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다.

김 원장은 인사말에서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오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또 와주시니 정말 감사하다. 작년에 모은 기금으로 이사하려 했지만 돈도 조금 모자라고 장애인 시설을 기피하는 이유로 아직 새집을 구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꼭 이사떡을 돌리겠다"고 말했다.

변함없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화려한 댄스

2009년 2월 설립된 '좋은친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성인 지적장애인들을 낮 동안에 보호하는 시설이다. 특수학교 혹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고등부 과정을 마친 지적장애인들은 취업이나 대학진학이 어려워 가정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보호하는 가족 또한 심리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좋은친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이러한 성인 지적장애인들을 낮 동안 보호하여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적장애인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있다. 현재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20대 장애인 15명이 이곳에서 보호받고 있다.

김 원장은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 남현교회와 5분 거리인 상가 건물의 한 층을 빌려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이 열악해 어려움이 많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인순이가 이사비용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이번 공연을 기획한 것이다.

이날 1인당 2만원인 공연티켓의 수익금 전액은 '좋은친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기부됐다. 인순이는 '노 개런티'로 무대에 올라, "관객 여러분이 내신 거금의 본전을 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시간 가까이 열창했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화려한 댄스실력, 그리고 그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감동적인 무대였다. 특히 샤이니의 '링딩동'을 부르며 파워풀한 춤을 춰, 나이를 무색하게 했다.

곡도 팝송부터 가요, 댄스곡, 성가,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었다. 인순이는 "사실 제 노래 중 건전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3대가 공감할 수 있는 노래로 관객들과 소통했다. 그중 '딸에게'와 '아버지'는 그의 삶이 녹아들어 있다.

마지막은 수화 곁들인 '거위의 꿈'으로

"지금 고3인 제 딸이 사춘기를 시작할 때 저는 갱년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민감한 시기라 딸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딸과 대판 붙은 다음 날 녹음하러 가서는 너무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딸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노래입니다. 저 역시 딸이고 여기 계신 여성 여러분 역시 소중한 딸입니다."

이어 '아버지'를 부를 때 그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지난해 뉴욕 맨해튼의 카네기홀에서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기념해 가진 공연에서 부른 노래이기도 하다.

6·25참전용사 1백여 명과 16개 참전국의 유엔 대사를 초청한 자리에서 인순이는 "혹시 한국전쟁 중에 저 같은 자식을 놔두고 와서 마음 고생하신 분들 있거들랑 오늘 이후로 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때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면서 이 노래를 불러 세계인을 감동시켰다.

또한 그는 자신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인순이는 "중학교 때가 기억난다"며 "1회 졸업생이라서 교실과 교무실 딱 두 칸이었다. 내가 조금만 웃으면 교무실에서 다 알 정도였다"며 그리운 추억을 나눴다.

그리고 관객들과 함께 '친구여'를 불렀다. 특별히 이날에는 인순이의 중학교 때 영어교사였던 이정숙 선생님이 전라북도 익산에서 올라와 제자의 공연을 응원하기도 했다.

마지막 곡은 수화를 곁들인 '거위의 꿈'이었고 감동의 물결을 선

염동우 기자

공연 중 가수 인순이는 평소 친분이 있던 문화체육관광부 박선규 차관을 무대 위로 깜짝 초대했다. 박 차관은 이날 생일을 맞은 인순이에게 축하인사를 전하며 직접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줬다.

사했다. 인순이는 "오늘을 계기로 장애인을 조금 더 보듬어주고 내 가족처럼 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다들 아픕니다. 그러나 드러나게 아픈 분들을 우리가 좀 더 보듬어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온정을 전했다.

인순이 깜짝 생일파티 보너스 이벤트도

앙코르곡으로 신나는 트로트가 이어졌다. 앉아 있던 장애인들도 벌떡 일어나 춤출 정도로 객석이 들썩거렸다. 장애인과 일반인이 하나가 되어 춤추고 노래하는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졌다.

한편, 인순이는 이날 공연 중 문화체육관광부 박선규 차관을 무대 위로 깜짝 초대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제 평생 소원이 이뤄졌다"며 "제가 언제 인순이 옆에 서보겠습니까"라고 말해 청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박 차관은 "지난해 인순이씨가 카네기홀에서 6·25참전용사를 위해 펼친 콘서트 기사를 읽고 감동했다"며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분들이 우리의 희망이다. 장애인 지원은 정부가 앞장서야 할 일이다. 제가 더욱 열심히 일하고 돕겠다"고 말하며 직원들과 함께 모은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공연에는 한가지 이벤트가 더 있었다. 바로 인순이의 생일이었던 것이다. 공연이 끝난 후 깜짝 생일파티가 열렸다. 인순이는 "생일은 제가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라, 온전히 봉사하고 싶었던 것인데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개봉동에 사는 최혜진(36)씨는 "지인 소개로 공연을 보러 왔는데 정말 재미있고 감동적인 무대였다"며 공연소감을 전했다. G

글·이제남 기자

신경숙, '문학 한류'를 부탁해

〈엄마를 부탁해〉 미국시장 돌풍… 한국문학 상업적 경쟁력 입증

신경숙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중국, 프랑스에 이어 이번 4월 5일 미국에서 출간되었으며 앞으로 21개 나라에서 계속 출간될 예정이다. 미국에서의 시장반응 정도에 따라 향후 이 소설의 진출 언어권 영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조선DB

신경숙씨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지난 4월 5일 미국에서 출간됐고 앞으로 21개국에서 계속 출간될 예정이다.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태평양을 건너 미 대륙에 안착했다. 여기저기서 그의 성공적인 입성을 축하하는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있다. 한국에서 출간되자마자 필자가 그를 만나 이 소설을 해외에 진출시켜 보겠다는 제안과 함께 분주한 준비과정을 거친 지 2년여 만에 이루어진 결실이다. 미국에서의 시장반응 정도에 따라 향후 이 소설의 진출 언어권 영역은 확대될 전망이다.

그래서 이 소설의 미국판 출간을 두고 연일 화제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가 더욱 화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간단하다. 미국 현지에서의 반응 때문이다.

4월3일자 〈뉴욕타임스〉는 "모성의 신비에 대한 헌사"라고 호평했고, 미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발행하는 〈O매거진〉은 4월호에서 '4월에 읽어야 할 톱10'으로 이 소설을 선정했으며, 유명 패션지 〈엘르〉는 "한국인의 경험에 근거한 소설을 국제적인 성공으로 끌어올렸다"고 호평했다.

미국서 초판 10만 부… 21개국에서 계속 출간

이뿐만이 아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제이미 포드는 "이 소설은 우리의 기억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책이다. 내가 처음으로 다시 읽고 싶은 책을 만났다"고 말하는 등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외에도 퓰리처상 수상 작가를 비롯한 수많은 유명작가가 이 소설에 찬사를 보내오고 있다. 출판전문지 〈커쿠스리뷰〉는 "초판 10만 부 찍어 마땅한 책"이라고 했고, 〈퍼블리셔스위클리〉는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미국에서도 유사한 흥행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잡지 모두 이 소설이 미국출판시장에서 보일 영향력을 진작부터 예견했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이 소설을 읽은 일반독자들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엄마를 부탁해〉에 대한 호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 전 세계 최대 온라인서점 아마존닷컴은 '4월의 특별한 책'으로 이

소설을 선정, 한 달 내내 자체적으로 별도의 홍보 마케팅을 펼친다.

미 최대 체인서점 반즈앤노블은 '2011 여름 디스커버 프로그램'을 위한 15권의 책 중 한 권으로 이 소설을 선정했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책들은 앞으로 전국 체인매장에서 특별전시되며 작가초청 이벤트도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미국 내 독립 서점업자들이 모여 매달 출간되는 신작 중 이달의 도서를 선정하는데, 〈인디넥스트리스트(Indie Next List)〉라는 도서선정 리스트에 〈엄마를 부탁해〉가 4월의 도서로 선정돼 세계 각국에 배포되는 도서뉴스레터에 포함된 것이다. 이제 작가 신경숙이 바빠졌다.

마케팅 파워 가진 출판사·편집자와 인연이 중요

당장 4월 5일 뉴욕한국문화원 리셉션 행사를 시작으로 5월 초까지는 미국 7개 도시 순회 행사를 갖고,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는 유럽 8개국 투어에 나선다. 유럽 북투어 중엔 현지 기자단 인터뷰, 서점이벤트, 낭독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예정돼 있다.

한국문학 혹은 한국문화콘텐츠를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세계출판시장에 나가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 답은 이미 나온 셈이다.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그 중 핵심 요소 두 가지만 들어본다. 먼저, 미국과 유럽 등 치열한 상업적 환경에서 경쟁력을 가질 작품을 선정, 진출시키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하나의 소설이 뛰어난 문학성을 지니고 있어 상업적 경쟁력이 있든, 내용상 상업적 어필 파워가 강해 경쟁력이 있든, 어떤 형태로든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미국시장에서 해외문학 수용이 고작 1퍼센트 안팎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긴 하지만 상업적 성공이 예상되는 책을 멀리할 강심장을 지닌 출판사는 세계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작고한 스웨덴 작가 스티그 라르손의 소설이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배경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다음으로는, 가급적 마케팅 파워를 지닌 출판사 혹은 편집자와 인연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판사나 편집자의 역량에 따라 현지에서 표현되는 방식과 그를 통해 나타나는 효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우리 문학을 해외에 보급 내지는 전파하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둘 시기는 지난 것 같다. 결국 어떤 가치·명분을 두고 우리 문학을 해외에 소개하느냐와 거기에 차별화 전략과 그에 따른 구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올림픽에 출전, 금메달을 놓고 경

'플리즈 룩 애프터 맘'(Please Look After Mom)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출간된 〈엄마를 부탁해〉 출판기념회가 뉴욕 맨해튼의 한국 총영사관에서 지난 4월6일 개최됐다. 사진은 신경숙 작가가 팬 사인회를 갖고 있는 모습.

쟁하는 결승전에 진출한 상황이다. 그는 이미 은메달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초판 10만 부가 이미 서점에 깔려 시판도 되기 전에 선주문으로 모두 소진됐고, 재쇄까지 들어간 마당이기 때문이다.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것이다. 미국에서 10만 부 작가가 되었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나온 평가를 놓고만 보더라도 문학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성공을 거뒀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시장에 선보일 다음 작품도 선정 마쳐

필자, 그리고 필자와 함께 손발을 맞추며 일하는 미국현지 에이전트(Barbara J. Zitwer)는 이미 2년 전부터 〈엄마를 부탁해〉 다음으로 신경숙의 어떤 작품을 세계시장에 선보여야 할지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그리고 불과 수개월 전에서야 그 결정을 내렸다. 신경숙이 다른 작가에 비해 비교적 많은 장편소설을 발표했고 또 작품마다 적잖은 성공을 거둬왔지만, 해외에서 〈엄마를 부탁해〉를 이을 작품을 선정한다는 일은 결코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한 작가의 입지기반을 다지고 또 그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세계출판시장은 한국문학에 이전과는 다른 시선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문화 전반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신경숙과 그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우리 문학에, 그리고 우리 문화계에 기여한 공이 바로 그것이다. G

글·이구용 (출판칼럼니스트)

수리수리 마수리… 이은결, 전설이 되다

세계 마술계의 오스카상인 '멀린상' 한국인 최초로 수상

마술사 이은결이 한국 마술의 신화를 새롭게 썼다. 지난 3월 27일 세계 마술계 최고 권위의 상인 '멀린상'을 수상한 것이다. 마술의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마술을 대중화하고 세계 최고의 마술사로 우뚝 선 이은결씨를 만나봤다.

2003년 한 TV광고에 뾰족 머리의 젊은 마술사가 등장했다. '상상예찬'이라는 광고카피와 함께 카드를 흩날리던 마술사가 바로 이은결이다.

한국 마술의 대중화를 이끌어낸 그가 이번에는 세계 마술계를 흔들어놨다. 지난 3월 27일 세계 마술계의 최고 권위를 지닌 '멀린상'(The Merlin Award)을 수상한 것이다. 국제마술사협회(IMS)는 1968년부터 매년 심사를 거쳐 전 세계 마술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활동을 펼친 마술사 1명을 선정해 멀린상을 수여해 왔다.

역대 수상자로는 데이비드 카퍼필드, 해리 블랙스톤, 지그프리드&로이(팀), '태양의 서커스'의 스타 마술사 크리스 엔젤, 중국 마술 붐을 일으킨 루이첸 등이 있다. 여기에 한국인 최초로 이은결이 수상자로 오른 것이다.

그는 "전설적인 마술사들이 수상했던 상을 받게 된 만큼 한국 마술 공연이 더욱 많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다"며 "상 자체의 의미와 영광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이 상을 받으면서 저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더 큰 성과이자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그는 국제마술사협회로부터 최근 1년간 전 세계 마술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것으로 평가받아 이 상을 받게 됐다. 현재 그는 지난해 11월 처음 선보인 블록버스터매직쇼 '더 일루전'(The Illusion)으로 전국순회 공연 중이다. 2009년 7월 군 제대 후 처음 선보이는 컴백 공연이다.

블록버스터매직쇼 '더 일루전' 전국순회 공연 중

2년간의 군 복무 기간은 그를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해군 홍보단 마술병으로 전국을 다니며 1년에 1백20여 차례 공연을 했다. 이때 주로 소외된 이웃을 상대로 마술 공연을 하다 보니 '무엇을 위해 마술을 하는가'라는 초심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군에선 일과 후 연장과업이란 시간이 있었다. 이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습을 하며 구상한 아이디어는 군 제대 후 새로운 마술쇼를 선보이는 뼈대가 됐다.

"'더 일루전'은 기존의 대형 마술을 의미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마술 너머의 환상을 표현하는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술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이 공연을 보며 스스로 환상을 그려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공연에 자신의 마술 인생 15년과 그동안 관객과 함께 만들어온 상상 이야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지금껏 해왔던 자신의 모든 면을 담은 공연이라는 것이다. 그의 설명처럼 총 2부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1백30분간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1부는 마술의 총결산으로 이씨가 그동안 해왔던 마술의 노하우를 공개하고 2부는 마임과 미

스케치북에 앵무새를 그리자 살아있는 앵무새가 훨훨 날아서 나오고 불 붙은 쇠꼬챙이가 상자를 꿰뚫는 순간 그 안에 있던 미녀가 사라진다. 블록버스터매직쇼 '더 일루전'은 이처럼 화려한 마술과 함께 마임, 영상 등이 곁들어진 감각적인 무대 구성으로 한 편의 예술작품을 보는 듯하다.

*한국 마술의 신화를 써가고 있는 이은결.
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한국 마술은 공연이 아닌
눈속임으로 여겨져 관람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로맨스와 드라마가 곁들어진 그의 마술은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고 마침내 세계 마술계를 흔들어놨다.*

디어아트가 결합된 환상극으로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1996년 마술을 시작한 그는 2006년 국제마술대전(FISM)에서 아시아 최초로 제너럴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 이미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왔다.

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한국 마술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될지 아무도 몰랐다. 과거 우리나라는 마술을 공연으로 즐기기보다 눈속임으로 치부해 관람문화가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맨스와 드라마가 곁들어진 그의 마술은 대중의 감성을 자극했다. 이런 영향으로 마술이 대중화되면서 마술 동호인 수가 폭발적으로 늘기도 했다.

소심한 성격 고치려고 중학교 때 처음 입문

그런 그가 마술을 배우게 된 것은 소극적인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중3 때, 아버지의 권유로 마술학원에 나가게 된 그는 점점 마술에 깊이 빠졌다. 대학로에서 길거리 공연을 하고 한 동작을 연습하느라 밤을 새우기도 했다. 유명 마술사들의 영상도 1백 번 이상 봤다. 이처럼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그는 세계 최고의 마술사가 될 수 있었다.

"마술은 저에게 있어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 제게 수많은 가능성을 줬고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마술로써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가 롤모델로 삼은 마술사는 데이비드 카퍼필드이다. 그는 또 화가 피카소, 영화배우 마르셀 마르소, 아티스트 아르트로 브라게티 역시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꼽았다.

"많은 마술사와 연기자, 아티스트들의 장점을 배우고 제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술이 감성을 자극하는 무대가 되는 이유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마술로 하나가 될 때 마술사가 되길 정말 잘했다고 느낀다"는 이은결. 예술적 감각의 마술 공연으로, 앞으로 세계인의 감성을 울릴 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G

글·이제남 기자

"영웅은, 스포츠 영웅은 늘 그립다"

엄복동에서 김연아까지… "국가의 스포츠 무형자산 잘 돌봐야 한다"

"떴다 봐라 안창남, 굽어 보면 엄복동"에서부터 수영황제 박태환, 피겨여왕 김연아까지. 우리 곁에 그들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울분을 달래 주고 경제부흥기에 민족 긍지를 고취시켜 준 스포츠영웅들이다. 우리의 근현대사 1백년은 우리 심장을 벅차게 뛰게 한 스포츠영웅들과 함께한 1백년이었다.

지난해 여름 마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살아난 듯 '엄복동 자전거'가 화제를 모았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8월 24일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근대스포츠영웅으로 이름을 날린 엄복동(1892~1951년) 선수의 자전거를 문화재(등록문화재 제466호)로 등재한 것이다.

'엄복동 자전거'는 '최초의 스포츠영웅'이랄 수 있는 엄복동에게 1920년 영국 러지(Rudge-Whirtworth)사가 기증한 것으로, 엄복동이 은퇴 후 후배선수에게 물려주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엄복동은 1910년 전조선자전거대회에 출전해 우승한 이후 1929년 은퇴할 때까지 수많은 대회에 참가하며 월등한 기량으로 일본 선수들을 제치고 우승했다. 그의 우승은 국권 상실기의 암울한 시대에 민족적 일체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킨 '역사적 사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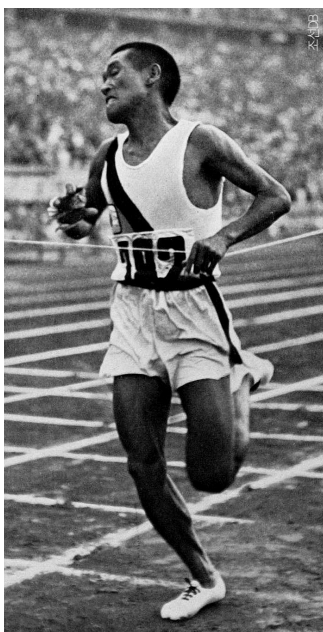
엄복동이란 이름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였던 안창남(1900~1930년)과 더불어 "떴다 봐라 안창남, 굽어보면 엄복동"이라는 노래로도 칭송됐다. 하지만 은퇴 뒤 그의 기록은 초라하다.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그는 광복 후 경기도 동두천과 연천 부근에서 떠돌이생활을 하다 1952년 6·25 전쟁 당시 비행기 폭격으로 삶을 마감했다.

'한국스포츠 1백년, 스포츠영웅 왜 중요한가' 세미나 열려

한때 민족영웅으로 불리던 이의 은퇴 후 인생행로가 왜 이리 초라했을까. 근대스포츠 1백년을 돌아보면 비운의 스포츠영웅은 엄복동 한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4월 5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 '한국스포츠 100년, 스포츠영웅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는 이 같은 현실에 대

조선DB

지난 4월 5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 '한국스포츠 100년, 스포츠영웅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의 세미나 현장. 스포츠영웅들의 은퇴 후 삶을 소재로 한 KBS TV의 시사다큐 프로그램 〈쌈〉의 '슬픈 금메달'이 소개되고 있다.

한국 근현대사 1백년 동안 우리의 스포츠 영웅들은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였다. 사진 왼쪽부터 일제 강점기 엄복동이 탔던 자전거, 그리고 손기정(마라톤), 김재엽(유도), 이은경(양궁) 선수.

한 자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스포츠영웅의 의의와 중요성, 재조명 방안 등에 대해 논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한국체육학회(회장 이종영), 한국체육정책학회(회장 안양옥)가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체육인과 관련 학회와 단체, 언론인 등 3백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구창모 한서대 스포츠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스포츠 100년, 스포츠영웅은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한국선수들은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꿈을 이룬 국민적 영웅이 되어 왔다"며 "스포츠영웅이 한 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분야는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절실한 사회통합"이라고 말했다.

사회통합·역할로델로 국민들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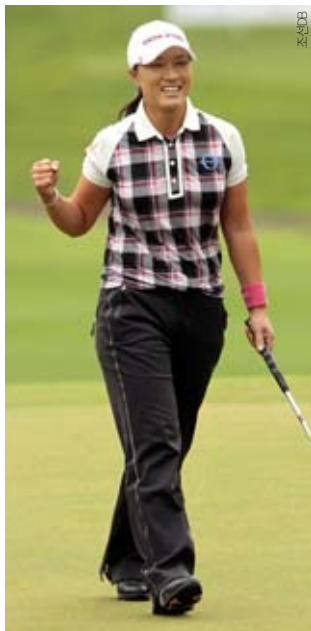
그렇다면 스포츠영웅은 어떤 사람들인가. 구 교수는 "스포츠영웅이란 일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일생 동안 이룩한 스포츠 업적을 바탕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라며 "높은 도덕성, 유일성, 상징성, 허구성을 지닌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포츠영웅이 자칫 물질만능주의 조장, 엘리트 제일주의 촉진, 문화적 식민주의 초래 등 역기능도 가져올 수 있으나 사람들은 사회적·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역할모델이 되어 줄 영웅을 그리워한다"며 사회통합 이외에도 심리적 요인에서 스포츠영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호준 우석대 태권도학과 교수는 '스포츠영웅의 의미와 현실'이란 주제의 발제에서 "과거 어려웠던 시절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주었던 손기정, 박세리, 박찬호, 축구의 태극전사 같은 스포츠영웅들은 국가적 위기를 거치는 동안 사회통합과 민족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존재였다"고 말했다.

스포츠영웅의 역할을 크게 임춘해와 같은 '역할모델'과 손기정, 박세리, 박찬호 등과 같은 '사회통합과 국위선양 모델'로 구분한 천 교수는 "스포츠영웅들에 대해 오픈카 퍼레이드까지 하며 환영식을 해 주기도 했지만 그들 대부분 국민의 기억에서 사라져 갔다. 이는 무형의 국가적 자산의 손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KBS TV의 시사다큐멘터리 <쌈>의 '슬픈 금메달' 편을 제작했던 KBS 스포츠제작부의 정재용 기자는 토론자로 참석해 스포츠영웅들의 그늘진 삶을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정 기자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유도 금메달을 따내고 은퇴한 뒤 굴곡진 삶을 살아온 김재엽 선수(현 동서울대 교수)를 예로 들며 "한국 스포츠는 금메달을 딸 때까지의 과정만 시스템화돼 있고 그 이후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았다"며 "영웅을 만드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전환과정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진정한 스포츠영웅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우리의 스포츠영웅들이 경기 후 방치되는 콜로세움의 검투사 같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세리(골프)

전이경(쇼트트랙)

'스포츠영웅의 의미와 현실: 해외사례를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발제를 한 권순용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는 스포츠영웅에 대한 해외 예우 사례로 명예의 전당 및 박물관(Halls of Fame and Museums) 현황을 전했다.

권 교수는 "전 세계 46개국에서 5백80개 이상의 스포츠박물관 및 명예의 전당이 운영 중이고, 이 중 약 4백여 개가 미국과 캐나다에 있다"며 "세계 10대 스포츠강국으로 자칭하는 우리나라에는 내세울 만한 스포츠 명예의 전당 및 박물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포츠영웅 기념사업은 스포츠영웅 개인에 대한 예우나 보상에 머무르기보다 스포츠를 하나의 문화적 자산으로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인프라 구축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적 자산으로 향유할 스포츠인프라 구축 필요

이날 세미나의 마지막 발제자인 권민혁 단국대 체육교육과 교수는 '우리나라 스포츠영웅의 재조명을 위한 과제'란 주제로 "현대사회에서 스포츠영웅은 세계 공통의 기준이 적용되고 경쟁대상이 분명하며 평가하기가 쉽다는 특성 때문에 모든 이의 사랑을 받고 자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했다.

즉 ▲스포츠영웅의 조건과 자질, 범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스포츠영웅의 자질교육 선행 ▲여성 스포츠영웅의 발굴 ▲국가적(national) 스포츠영웅과 함께 지역적(local) 스포츠영웅 확산 ▲'1등' 이외의 스포츠영웅 만들기 등이다.

1980년대 배구스타였던 장윤창 경기대 체육학과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우리 현실에선 스포츠영웅이란 말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느낌을 갖는다"며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스포츠영웅의 범위 규정, 연금제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 다음 스포츠영웅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레슬링 경기인 출신인 김학열 경기단체연합회 회장도 토론자로 나와 "많은 스포츠인들이 현장에서는 영웅이고 스타이지만 사회로 돌아갈 때는 절름발이 내지 반쪽 영웅이 된다. 이들이 은퇴 후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과 관리 지원이 요구된다"며 ▲스포츠영웅 거리 조성 ▲전담조직의 지속적 관리 ▲스포츠지원센터 건립 등을 제안했다.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이날 "영웅을 가진 사회와 영웅을 가지지 못한 사회는 다르다"며 "영웅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말로 축사를 시작했다.

"영웅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

"박치기왕 김일, 축구선수 차범근, 세계청소년축구대회 4강신화의 박종환 감독 등 스포츠영웅들은 어려운 시절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준 후대의 표상"이라고 말한 박 차관은 외신기자들이 강원도 평창에 대해 "왜 세번째 도전이냐" 물었을 때 했던 답변으로 '왜 지금 스포츠영웅인가'를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올림픽을 계기로 발전한 나라라고 답했습니다. 서울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을 내보였고, 성공 개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올림픽 정신에 진 빚을 갚으려고 한다, 당신들도 우리처럼 성공하라고, 대한민국이 개최하는 올림픽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입니다."

박 차관은 '영웅들을 만들어 보자'는 말로 축사를 마무리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된 비결은 끊임없이 영웅을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영웅이 모델이 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대열에 합류하면서 미국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우리도 영웅을 만들어 봅시다."

잊혔던 엄복동의 이름은 '엄복동 자전거'의 문화재 선정을 계기로 다시 우리 곁에 돌아왔다. 요즘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는 암을 극복하고 '투르 드 프랑스' 7연패를 한 미국의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이 살아있는 인간승리의 신화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낡은 중고 자전거로 민족의 긍지를 드높인 엄복동이 있었음을, 그리하여 많은 엄복동의 후예들이 고난 극복과 부흥의 역사 속에서 희망과 위로의 영웅들이 되어 주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G 글·박경아 기자

결혼이민자들 '내 일(my work)'이 옵니다

고용노동부, 구직등록자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

지난 2006년 결혼해 한국으로 건너온 베트남 출신 리 티 느빈(27)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하 1층 창업보육실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동작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실내소품제작사 과정을 마치고 창업, 에코백과 쿠션, 베개 등 생활소품을 만들어 동작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판매하고 있다.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인 유샨샨 씨와 류꾸이펀 씨는 지난해 전주의 한 봉제업체에 취직했다.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난해부터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봉제교육 덕분이다.

정성자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팀장은 "지난해 우리 센터에서 봉제교육을 받은 교육생 60명 중 2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며 "올해도 지난 3월 28일부터 두 달 일정으로 주 5일, 하루 3시간씩 봉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DB

고용노동부는 결혼이민자가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4월 한 달간 '결혼이민자 특별구직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

이처럼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결혼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결혼이민자 특별구직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운영되는 특별구직등록기간은 더 많은 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수는 ▲2008년 14만4천3백85명 ▲2009년 16만7천90명 ▲2010년 18만1천6백71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4월 한 달간 '결혼이민자 특별구직등록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구직등록을 한 결혼이민자에 대해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다국어 콜센터 직원' 등 결혼이민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정보와 사회적 기업 관련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진로지도와 직업능력개발에 도움을 주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받게 되고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인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 대상이 돼 무료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저소득층의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 취업지원제도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자가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더 많은 직업훈련비(2백만원 → 3백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연중 결혼이민자의 구직등록을 받으면서도 특별구직등록기간을 정하고 나선 것은 집중적인 홍보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창훈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지난해 결혼이민자 특별구직등록기간을 운영해 취업에 성공한 결혼이민자가 2009년 대비 4배 이상 늘었다"며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취업정보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G

글·박경아 기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국번없이)1350 · www.work.go.kr/jobcenter

풍부한 미네랄 성분으로 주목받는 '강릉 금진온천'

협업으로 동북아 의료관광 허브 만든다

강원도 강릉 지역이 금진온천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의료관광 허브'로 개발된다. 이러한 개발은 지방의 한 벤처기업과 대기업, 대학병원의 협력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중소기업 상생, 지방·중앙기업 상생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드라마 〈모래시계〉 덕분에 유명해진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에서부터 해안도로를 따라 심곡항에 이르면 그곳에서 금진항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해안도로가 이어진다. 푸른 바다와 해안단구가 절경에, 언제라도 파도가 들이칠 듯 바다에 접한 '헌화로'다. 신라 성덕왕 때 수로부인에게 소 몰던 노인이 절벽 위에 핀 철쭉꽃을 꺾어 바쳤다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와 헌화로라 불린다.

헌화로를 지나면 금진항에서 올려다보이는 높다란 해안단구 위로 옥계면 금진리 92의1번지 일대에 금진온천이 있다.

지난 2002년 발견된 금진온천의 물은 기존 온천수와 달리 짠맛이다. 하지만 그 구성 성분은 바닷물과 다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의 성분 분석 결과 짠맛을 내는 나트륨과 쓴맛을 내는 마그네슘은 바닷물에 비해 적은 반면 칼슘(Ca) 농도는 약 5배 높았다.

무엇보다 항암·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셀레늄(Se)과 혈당강하, 콜레스테롤 합성저해 기능이 있는 바나듐(V)의 농도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는 아연(Zn), 통증 감소 효과로 알려진 게르마늄(Ge)도 다량 함유하고 있다.

금진온천 개발자인 벤처기업 금진생명과학은 지하 1천1백미터 깊이의 고생대 암반 지층에서 형성된 금진온천수의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 강원도와 강릉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 국립축산과학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과 연구개발을 추진했다.

칼슘 농도 바닷물의 5배… 게르마늄 등 다량 함유

그 결과 금진온천수의 효능이 속속 드러났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의 연구 결과 금진온천수의 칼슘과 마그네슘(Mg) 비율은 인체 흡수에 가장 이상적인 1.6대1의 비율로 이온화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암세포 억제효과도 있어 종양괴사가 일찍 일어났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아토피와 피부질환 관련 효능 연구에서는 염증완화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 건국대 산학협력단의 연구는 백혈병과 대장암 세포수 증식억제 효과, 암세포 성장에 필요한 신생혈관 형성 억제 효과를 밝혀 냈다.

또한 식물보호연구소의 연구는 금진온천수가 식물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강원대 박춘근 동물생명과학과 교수의 연구에서는 돼지 수정능력이 향상됐다.

금진생명과학의 권순성(30) 연구원은 "금진온천수가 특이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은 풍부한 미네랄 덕분"이라며 "유럽의 유명 온천들이 대개 탄광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그런 지역에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금진온천 역시 바로 뒤쪽 기마봉에 일제강점기에 채굴했던 폐탄광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릉시 옥계면의 금진온천.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한 금진온천수와 청정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대·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교육기관이 연계한 휴양치료형 헬스케어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조선DB

금진온천수로 만든 화장품과 비누, 치약들.

조선DB

미국 수출용 금진온천수. 정제되지 않은 금진온천수는 미네랄 때문에 붉은 빛이다.

금진온천수의 다양한 효능이 밝혀지면서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급속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에 시달려 온 지역경제가 금진온천을 중심으로 한 의료관광 사업으로 새로운 활력을 찾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진생명과학은 2009년 10월 지식경제부의 강원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의료관광 분야에 '수(水)치료 보완대체의학상품 개발' 사업자로 선정돼 가톨릭대 의대,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금진온천수가 인체에 미치는 17개 질환에 대한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올 12월 완료되는 가톨릭대 의대 연구에서는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관절염 억제 효과, 골다공증 개선, 인체의 칼슘흡수 촉진, 전립선질환 개선, 간기능 개선 효과 등이 밝혀졌다.

가톨릭대 의대 윤건호 수치료사업단장은 "이렇게 다양한 미네랄이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온천수는 국내에서는 처음 본다. 금진온천수는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의 유명온천에서나 볼 수 있는 고(高)미네랄의 온천수"라며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인 칼슘, 관절염 환자에게 좋은 원적외선 등이 당장 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능"이라고 말했다.

"골다공증·관절염 등 당장 의학적 활용 가능"

윤 단장은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질병치료보다는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심을 갖게 된다"며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에 풍부한 미네랄 성분의 온천수, 그리고 과학적인 운영까지 곁들인다면 금진온천 지역은 국제적인 명품 의료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도 마련됐다. 금진온천이 2004년 6월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금진생명과학은 2008년 12월 금진·심곡 온천개발계획을 승인받았다. 이 계획은 2010년 12월 정부의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추진사업에 '동해안 블루헬스케어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반영됐다.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뉘어 금진·심곡지구 2백87만6천평방미터에 메디컬 온천장, 아토피 치유센터, 건강요법 체험센터 등을 구축하는 헬스케어 사업이 추진된다.

최근 대기업의 참여로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고 있다. 금진생명과학은 지난해 7월 동양그룹, 가톨릭대 의대와 금진온천수를 활용한 각종 사업(화장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약품)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동양그룹 자회사인 미러스가 금진생명과학의 주식 70퍼센트를 취득, 헬스케어 사업 진출에 본격 나서고 있다.

대기업 투자·대학과 공동연구 등 동반성장 모범

금진온천을 개발하고 지난 2월 물러난 김정득 금진생명과학 전 대표이사는 "국가적 사업을 금진생명과학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파트너로 동양을 택했다"며 금진온천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지역경제 중심이 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아쉬운 것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2백50밀리리터 병당 15달러에 수출한 금진온천수가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미네랄 함유량 때문에 먹는 물로 유통되지 못한 점"이라며 "미네랄 농도가 높은 광천수를 음용수로 허용한 독일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미네랄워터의 활용을 위한 새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최선강 해양바이오사업단장은 "지역 벤처기업인 금진생명과학에 대기업인 동양그룹이 투자하고 대학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보기 드문 동반성장의 모범사례"라며 "'휴양치료형 헬스케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대·중소기업과 전문연구기관,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금진온천을 동북아 의료관광의 중심으로 키워 나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G

글·박경아 기자

23세 나! 인도 뭄바이서 세상을 품다

유학생활 하면서 한국기업 상대로 컨설팅업체 운영하는 '사장님'

인도 뭄바이 대학생이자 인도 진출 한국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필인디아(Philindia)' 대표인 박시용씨는 G20세대란 타이틀이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청년이다. 그와 나눈 짧은 대화만으로도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이란 인상을 받기에 충분했다.

조선DB

인도 유학과 컨설팅 회사 운영을 병행하고 있는 박시용씨는 제3세계를 돕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키우는 가슴 따뜻한 G20세대다.

박시용(23)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남다른 진로를 선택했다. 보통 남들이 선택하는 미국이나 캐나다를 두고 다소 생소한 인도를 선택한 것이다.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아버지는 제게 '롤모델' 같은 분이세요. 아버지께서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가 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신문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BRICs 관련 기사들을 빼놓지 않고 읽으며 관심을 기울였다. 고교 1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다녀온 두 달간의 인도 배낭여행은 인도로의 유학에 대한 마음을 굳히게 만들었다.

"인도의 델리대학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이 세상에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넓은 세상에서 이런 인재들과 함께 경쟁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박시용 경력 필인디아(Philindia) 대표이사(2008년~현재) 유엔 인도협회 대표(2010년~현재) **학력** 인도 뭄바이 대학 재학 중 **블로그** blog.daum.net/philindia

뭄바이 대학

시용씨는 현재 뭄바이 대학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인도의 교육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수업방식은 상당히 뛰어나요. 강의 위주의 수업보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이죠.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가로채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로 치열하게 토론이 진행돼요. 이런 방식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기르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인재들이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이랑 경쟁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다. 경제학과 정치학을 병행하는 게 재미있을까, 어렵지는 않을까.

"공부가 재미있을 순 없죠(웃음). 고교 시절부터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부 외에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겠다는 고민을 했어요. 사실 인도에서 공부만 하다가 귀국하면 대학 졸업장 외에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컨설팅 회사 Philindia

사용씨는 뭄바이에서 인도인 친구들과 함께 '필인디아(Philindia)'라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의 영어 이름인 '필립(Philip)'과 '인디아(India)'의 합성어인데, 발음상 '필 인디아(Feel India)'와 같아서 '인도를 느껴라!'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필인디아는 한국 기업이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때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학교 1학년 때인 20세 때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국내의 크고 작은 기업들에 컨설팅을 제공했다.

"제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어리다는 것, 둘째 외국인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영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것을 제외하고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지만 그는 '다른 면'에 집중했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하니까 사람들이 흥미를 갖더라고요. 사업에 홍보가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됐죠. 또 기본적으로 인도 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해 호의적인데, 특히 인도인과 동업을 하고 있으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줘 얻은 이점도 많아요."

물론 어려움도 많았다. 회사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회사를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에 그는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회사를 적극 홍보했다. 지난 2008년 11월 뭄바이에서 테러가 있을 때는 직접 찍고 작성한 사진과 기사를 포스팅해 한국에 신속하게 전달했고, 이런 활동이 회사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사업에 있어서 영리성을 빼놓고 말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사업이 성공적이었을까 궁금했다.

"사업의 성공 여부를 금전적으로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사업을 시작한 목적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경험을 쌓고 '박시용'이란 인도 전문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 사업은 현재까지 성공적입니다."

조선DB

시용씨의 웃음과 인도 아이들의 눈망울이 어우러진다. 하나 된 세상은 바로 여기 있다.

비전

미래의 비전과 꿈을 물었을 때 시용씨의 관심사는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인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거리의 가난하고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한다.

"한때는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 사회에 환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 돈을 벌수록 더 벌고 싶고, 정작 사회에 기부할 때는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는 세계적으로 영향력과 리더십이 있으면서도 현장을 발로 뛰며 소외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우선은 인도 전문가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활동으로 제3세계국가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제 능력을 펼치고 싶습니다."

그는 올해 뭄바이 대학을 졸업한 후 통역장교에 지원할 예정이다. 병역을 마치고 나서는 대학원에 진학해 국제관계나 외교학을 공부해 자신의 꿈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용씨를 취재하며 자신의 안위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열정적인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무척 반가웠다. 이렇게 약자를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G20세대가 한국사회를 이끌어 나간다면 한국이 살 만한 세상을 이끌어가는 선진국가가 되는 날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G

글 · 김남호 (G20세대 사이버 자문단 자문위원 ·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4년 · 페이스북 moooddoom@naver.com)

북위에 사신 보낸 백제 개로왕

'이이제이' 외교술, 고구려를 괴롭히다

백제 개로왕은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정벌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북위의 풍태후는 고구려에 망명 후 장수왕에게 죽임을 당한 풍홍의 손녀였다. 개로왕은 이런 과거의 악연(惡緣)을 이용해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했다. 하지만 고구려는 북위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북위의 황제는 형식적인 서신을 보내 고구려를 문책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472년 8월, 백제 사신이 북위 조정에 도착했다. 북위에 온 최초의 백제 사신이었다. 사신은 북연(北燕·411~436)의 유민을 받아들인 후 고구려가 강성해졌고, 그 때문에 30여 년간 백제가 공격을 받았다고 했다. 436년 고구려 장수왕이 북위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472년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는 이미 정상궤도에 올라 있었다. 462년에 고구려가 북위에 사신을 보낸 이후 두 나라의 관계는 급속히 개선됐다. 그렇다면 백제가 이 사실을 모르고 북위에 청병했던 것일까? 속단은 이르다. 〈위서〉(권100, 백제전)를 다시 보자.

"고구려는 남쪽으로는 유씨(劉氏·송나라)와 통하고 북쪽으로는 연연([illegible]·유연)과 맹약하기도 하며 서로 순치(脣齒)의 관계를 이루면서 왕략(王略·북위의 땅)을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백제는 당시 국제정세를 예리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다. 고구려가 남조(南朝) 송과 통하고 북방의 유목민 유연과 맹약해 북위를 포위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제는 북위 내정에 대해서도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사실 471년 북위 조정에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헌 문제의 퇴위가 논의되고 있었고, 결국 태자 굉(宏)이 효 문제(孝文帝)로 즉위했다. 풍태후가 헌 문제의 퇴위를 사주했다.

고구려에 껄끄러운 풍태후의 등장

북위 조정에서 풍태후의 득세는 백제에 반가운 소식이었다. 왜냐하면 풍태후는 438년에 고구려 장수왕에게 살해된 북연의 황제 풍홍의 손녀이기 때문이다. 북위에 보낸 백제 개로왕의 국서에 언급된 '풍씨'는 이와 관련이 있다.

"지금 연(璉·장수왕)의 죄로 나라는 어육(魚肉)이 됐고, 대신들과 호족들이 살해됨이 끝이 없어 죄악이 가득 쌓였으며, 백성은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멸망의 시기이며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또 풍족(馮族)의 사마에게는 조축지연(鳥畜之戀·집에서 기르는 새나 가축처럼 옛 주인을 그리워하고 있음)이 있고, 낙랑 등

백제 사신은 북위 헌 문제에게 개로왕의 '청병표'를 전했다. 이에 헌 문제는 북위 사절단을 고구려 영내를 통과하여 백제에 보내려고 했다. 북위 사신단이 고구려 영토를 통과한다면 장수왕의 입지는 손상될 것이며, 반대로 백제 개로왕은 북위와의 성공적인 외교를 이끌어낸 것이 된다.

여러 군은 수구지심(首丘之心)을 품고 있습니다. 폐하의 위엄을 한 번 발동하면 정벌만이 있고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위서)

백제 청병표(請兵表)에 '풍족의 사마(士馬)'라는 표현이 보인다. 북연 황제 풍홍은 436년 고구려 망명 때 자신의 신하, 병력, 백성도 동반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대상은 당시 북위의 천자 헌 문제가 아니다. 북위는 북연을 멸망시킨 장본인이다. 고구려에 망명한 북연인들이 그리워하는 대상은 풍홍의 손녀 풍태후가 확실하다.

'낙랑 제군(諸郡)의 수구지심' 운운한 대목도 마찬가지 의미이다. 〈위서〉(권30), '문명황후 풍씨전'을 보면 그녀의 어머니는 낙랑왕씨(樂浪王氏)로 기록돼 있다. 고구려에 살고 있는 북연인들과 낙랑인들은 북위 조정에서 막후 실력자인 풍태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제 북연에서 북위로 망명한 풍태후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432년 11월 북연에 내분이 일어났다. 폐출된 태자 풍숭(馮崇)이 요서지방에서 자립했던 것이다. 풍숭은 풍홍의 원처(元妻) 왕씨가 낳은 아들이다. 후처 모용씨 소생 풍왕인이 태자에 책봉되자 풍숭은 어머니 왕씨와 동생 풍랑·풍막과 함께 요서로 도망가서 북위에 도움을 청했다.

이 풍숭이 바로 풍태후의 큰아버지가 된다. 당시 북연을 공격하고 있던 북위에 풍숭의 귀순은 좋은 기회였다. 북위는 풍숭에게 작위를 수여하고 우대했다. 그러나 436년 북연이 멸망하자 풍숭과 그 가족들의 정치적 이용가치는 사라졌다.

백제 개로왕은 북위에 사신을 보내 남북에서 고구려를 압박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북위는 북연을 멸망시킨 후 고구려와 대적하기도 했지만, 이후 양국은 우호관계를 유지했다.

일러스트·이철원

풍승과 함께 북위에 귀순한 동생 '풍랑'이 바로 풍태후의 아버지다. 풍태후는 442년에 장안에서 태어났다. 그녀가 7세 되던 해(449년)에 집안에 불행이 밀어닥쳤다. 막내 삼촌 풍막이 북위의 숙적 유목제국 유연(柔然)으로 투항한 것이다. 아버지 풍랑은 이 일에 연좌돼 죽음을 당하고, 계모는 오빠인 풍희(馮熙)를 데리고 저강(氐羌·티베트)지역으로 도피했다. 어린 풍태후는 여자라 함께 데려가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고난은 풍태후에게 권력으로 향하는 계단이 됐다. 망국의 왕녀에서 버림받은 여아로 그리고 노비로, 그러나 455년에는 황제를 모시는 귀인으로, 다시 그 이듬해엔 황후가 됐다. 그러나 황후가 된 기쁨도 잠시, 곧 불행이 찾아왔다. 465년 남편 문성제가 죽고 20대 초반에 과부가 된 것이다.

북위, 고구려에 무리한 요구하며 압력 행사

문성제의 죽음이라는 불행은 그녀에게 또 다른 상승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그녀는 24세에 황실 최고의 어른 황태후 자리에 올랐다. 풍태후가 이렇게 화려한 변신을 하게 된 데는 태무제의 후궁(左昭儀)이었던 고모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궁궐로 들어온 것도 고모가 미리 손을 써 놓았기 때문이었다.

고모는 433년 6월 북위의 궁정에 들어왔다. 북연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부닥친 시기였다. 고모는 436년에 북연의 수도 화룡성이 함락되고, 친정아버지와 형제들이 고구려로 집단 망명했으며, 2년 후에 장수왕에 의해 그들이 학살당했다는 사실을 북위에서 알게 됐다. 7세에 북위 궁정에 들어와 고모의 후광 아래에서 성장한 풍태후도 고구려에서의 비극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다.

백제 개로왕의 국서를 받고 고구려에 압력을 행사한 사람은 풍태후가 아니라 헌 문제였다. 472년 헌 문제는 고구려에 사람을 파견해 실상을 조사했고, 북위 사절단을 고구려 영내를 통과하여 백제에 보내려고 했다.

북위 사신단이 고구려 영토를 통과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목도할 것이고, 장수왕이 북위 황제에게 굴복한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질 것이었다. 장수왕의 입지는 손상될 것이 확실하며, 반대로 백제 개로왕은 북위와의 성공적인 외교를 이끌어낸 것이 된다. 장수왕은 북위 황제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

헌 문제는 장수왕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서한을 통해 엄하게 질책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서한일 뿐이었다. 실질적인 조치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백제 사신 앞에서 북위의 무력함이 드러나게 되고, 나아가 대내외적으로 헌 문제의 위신이 실추될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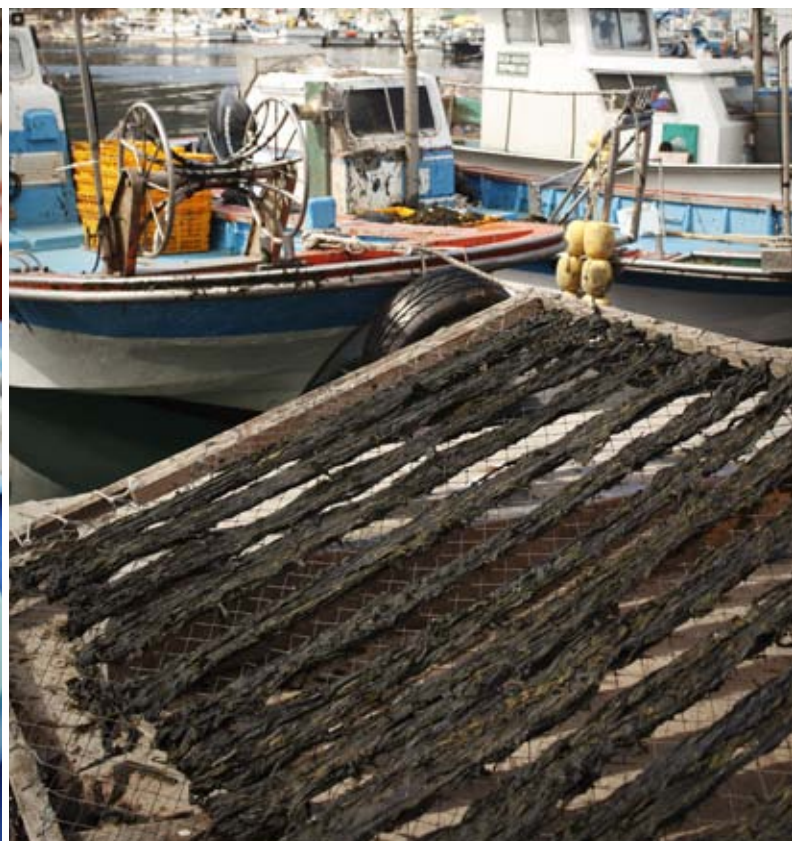
이런 상황은 백제의 청병이 사건의 발단이 되고, 헌 문제가 고구려에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474년 이후 헌 문제의 정적이던 풍태후가 직접 나서 장수왕에게 외교적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G 글·서영교(중원대 박물관장)

| 글 싣는 순서 |

① 다시 주목받는 백제 근초고왕
② 비운의 고구려 고국원왕
③ 광개토왕의 역사무대 등장
④ 광개토왕, 운명을 걸머진 자
⑤ 후연에 들어선 고구려 정권
⑥ 북위에 맞선 장수왕의 결단
⑦ 고구려 망명한 북연 황제, 풍홍
⑧ 장수왕의 중국 남북조 외교전략
⑨ 북위에 사신 보낸 백제 개로왕
⑩ 장수왕과 북위 풍태후
⑪ 백제 개로왕 일가의 몰살

어부들이 갓 잡아올린 멸치를 구성진 가락에 맞춰 그물에서 털어내고 있다.

봄멸치 그물 위로 춤추면 대변포구에 봄날이 온다

한 번쯤은 '기장 멸치'라는 말을 들어보았으리라. 남해나 삼천포, 통영의 멸치가 유명하다지만 기장에는 그 명성이 못 미친다. 4월이면 부산 기장 앞바다는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헤엄치는 멸치떼로 가득 찬다. 기장 대변항에서 잡히는 봄멸치는 씨알이 굵고 살이 연해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할 정도로 유명했다.

싱싱한 기장 봄멸치는 횟감으로도 인기다(왼쪽 사진). 대변포구를 거닐며 어촌마을의 한가로운 봄풍경을 느낄 수 있다.

4월 중순 무렵부터 부산 기장 앞바다에는 멸치가 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물 반 멸치 반'이다. 기장은 전국 유자망 멸치 어획고의 70퍼센트를 생산한다.

기장수협에 따르면, 멸치잡이 배 한 척이 1년에 20킬로그램들이 2만5천 상자분을 건진다. 기장 대변포구에서 나는 멸치는 연간 약 6천 톤에 달한다.

멸치는 크기에 따라 새끼멸치와 왕멸치로, 잡는 시기에 따라 봄멸치와 가을멸치로 나뉜다. 왕멸치는 기름기가 많아 육질이 다른 멸치보다 조금 더 쫄깃하다는 점에서 좋고, 봄멸치는 알을 배어 영양가가 높아서 더욱 좋다. 기장 앞바다에서 자망어업으로 잡히는 멸치는 왕멸치며 봄멸치다.

"메루치회 함 묵어보이소." "오늘 막 털어온 거라이." "봄멸치 하면 기장멸치 아인교. 두말하면 잔소리니 함 묵어보소." 대변포구를 걷고 있노라면 경상도 아지매 특유의 거친 억양이 발길을 잡아 이끈다.

한해살이인 멸치는 기장 앞바다로 번식을 위해 찾아들었다가 조류가 순해지는 조금물 때를 기다려 암초 위에 알을 쏟고는 짧은 생을 마친다. 기장 대변항의 어부들은 이 멸치들을 쓸어담으며 생을 산다.

멸치배가 들어오면 포구는 비로소 부산해진다. 배가 포구에 닿는 순간, 아낙들이 그물 양쪽 가장자리를 잡아당겨 주면 선원들이 탈망에 들어간다.

탈망은 그물을 털어 멸치를 모으는 과정이다. 비옷을 입고 두건을 쓴 7~8명의 선원이 '칫! 치–' '으샤– 으샤–'하는 구령에 맞춰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당기며 털어낸다.

그물이 한 번 펼쳐질 때마다 멸치가 허공으로 튀어 올랐다가 후두둑 떨어진다. 아낙들은 배 주위로 몰려와 부둣가 밖으로 떨어지는 멸치를 플라스틱 대야에 잽싸게 주워담는다.

갈매기 떼도 멸치를 먹기 위해 하얗게 날아든다. 아낙들의 대야에 담기는 멸치는 대가리가 떨어져 나가고 몸통 일부도 여기저기 마구 잘려나간 것들. 이것들은 소금을 뿌려 바로 젓갈로 만든다.

멸치 중의 최고 '기장 멸치'

탈망은 대략 오후 1~4시 사이, 밤 10~12시 사이에 벌어진다. 낮에는 햇빛을 받은 멸치가 비늘을 번쩍이며 튀어 오르는 장면이 장관이다. 밤에는 백열등 불빛에 반사되는 멸치의 몸통이 눈부시다. 그물에 매달린 멸치가 우수수 산처럼 쌓인다.

해마다 이 즈음이면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이 장면을 찍기 위해 몰려든다. 선원들은 지금까지 카메라 세례를 많이 받아서인지 무덤덤하다.

일정한 리듬을 타며 선원들이 멸치를 털어내는 광경은 보는 이의 입을 떡 벌어지게 할 정도로 장관이다. 선원들의 덩실대는 어깻짓에 맞춰 '툭! 툭!'하며 포구를 울려대는 그물 터는 소리, 헉헉거리는 선원들의 밭은 숨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한바탕 신명나는 굿판을 벌이는 듯하다.

탈망을 시작하자마자 선원들의 옷과 얼굴이 금세 멸치의 살과 내장으로 뒤범벅이 되는데 무아지경에 빠진 선원들의 얼굴은 마치 무당의 그것과 비슷하다.

선원들에게 4시간 가까이 계속되는 탈망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작업이다. 그물을 한 번 터는 데 그물이 줄어드는 길이라고 해봤자 고작 1미터 정도. 1.4킬로미터의 그물을 다 털어내려면 그야말로 팔다리에 피가 몰린다.

이런 까닭에 일종의 최면상태에 다다르지 않으면 작업을 끝낼 수 없다. 멸치를 잡는 일은 탈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토록 고된 작업이다 보니 멸치잡이배를 타려고 하는 선원도 없다. 그래서 요즘은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 가끔 탈망 대열에 끼기도 한다.

멸치 중에서 머리와 몸통이 제대로 붙어 있는 잘 생긴 놈은 횟감으로 쓰인다. 대변항 앞에는 멸치횟집이 몰려 있다. 주말이면 멸치회를 먹으러 온 사람들로 포구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빈다.

요즘 나는 봄멸치는 육질이 부드럽다. 입에 들어가면 살살 녹는 감칠맛이 느껴진다. 일반 회처럼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되고 10여 가지 채소에 버무려 먹어도 맛있다.

멸치털기의 장관에 입이 떡 벌어져

기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멸치로 만든 특별한 음식이 또 있는데 바로 멸치찌개다. 멸치를 통째로 넣고 된장과 우거지, 미나리, 방앗잎 등으로 국물을 진하게 낸 것이다. 전혀 비리지 않고 맛이 구수하다.

볏짚에 불을 댕겨 구워먹는 전통 방식의 '짚불구이 곰장어(갯장어)'도 기장의 별미다. 아궁이에 볏짚을 쌓고 불을 붙이면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는데, 석쇠에 곰장어를 얹은 뒤 이 열로 세 번 구워낸다.

짚불에서 적당히 구워진 곰장어의 새까맣게 탄 껍질을 벗기면 노릇노릇하게 익은 하얀 속살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먹기 좋게 잘라 소금이나 기름장에 찍어 먹는다.

원조는 '기장곰장어'. 4대째 곰장어 요리만 한자리(기장읍 시랑리)에서 해오고 있다. 솔잎의 향긋함이 더해지는 생솔잎 곰장어

대변포구에는 멸치, 미역, 다시마 등 각종 건어물을 파는 간이 가게들이 늘어서 있다.

기장 짚불구이 곰장어.

바다와 마주하고 있는 용궁사.

와 구수한 맛의 곰장어 된장국 등의 메뉴도 있다.

인근 월전마을은 장어로 유명하다. 남해지역에서는 장어라고 하면 붕장어를 가리킨다. 월전마을에는 포장을 둘러친 대형 포장집이 많다. 장어 1킬로그램 고작 2만4천원. 대충 산 장어를 토막쳐 내주면 손님이 즉석에서 막숯에 구워 먹는다.

또 다른 별미 '짚불구이 곰장어'

기장을 찾았다면 해동 용궁사에 들러보자. 수산과학원 가는 길을 따라 5분 정도를 가면 된다. 1376년 공민왕의 왕사였던 나옹화상이 창건했다. 정동진역이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철도역이라면, 아마도 해동 용궁사는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사찰일 것이다.

국내 대부분의 절이 산에 있지만 용궁사는 특이하게도 바닷가 기암괴석 위에 자리 잡고 있다. 그 까닭에 '수당법당'이라고도 한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108 계단'을 딛고 내려가 반원형의 불이문을 지나면 절 마당으로 진입하는 돌다리가 나오는데 이 돌다리 밑으로 동해의 거센 파도가 몰아친다. 바다 위에 걸쳐진 다리를 지나 절 속으로 걸어가다 보면 마치 용궁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용궁사는 특히 '기도'가 잘 먹히는 절로 알려져 있는데 기도한 사람의 소원 한 가지씩은 꼭 들어준다고 한다. G

글과 사진 · 최갑수(시인 · 여행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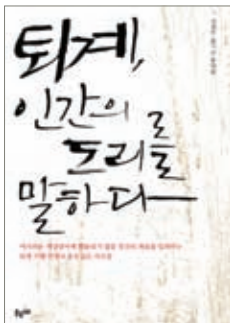
여·행·정·보

가는 길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원동 IC로 나와 31번 지방도를 따라간다. 달맞이 고개를 넘으면 기장. 최근 개통한 대구-부산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편하다.

먹을 곳 대변항 주변에 멸치회를 내는 횟집이 많이 몰려 있다. 멸치회는 특별한 양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어느 집이나 다 비슷비슷하다. **파도횟집**(051-721-3762)은 즉석에서 잡아올린 멸치를 머리와 내장을 추리고 한 달간 발효시킨 초장에 버무려낸다. **기장곰장어**(051-721-2934)의 곰장어구이가 잘 알려져 있다.

잠잘 곳 해운대와 가까워 해운대에 있는 호텔과 모텔, 민박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기장 대변항 입구에 **도원모텔**(051-724-4301) 등이 있다.

〈퇴계,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

조선 최고 학자의 일상, 살짝 엿보다

김성일 지음 · 김영두 옮김
푸르메 펴냄 · 1만4천8백원

동양의 공부방법은 서양의 것과 달랐다. 배우는 자가 질문하지 않으면 선생은 좀처럼 진리의 곳간을 열어주지 않았다.

서양은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이를 도덕적, 철학적 딜레마에 빠뜨리는 방법을 택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 강의를 떠올리면 된다. 방법은 달랐지만, 목표한 바는 비슷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은 것을 깨닫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도록 이끌어준 것이다. 동양의 공부법에 따르면, 제자들이 스승의 어록을 남기게 마련이다. 기실, 〈논어〉도 제자들이 기억해 낸 공자의 어록이지 않던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까? 왜 없겠는가. 이황의 어록이 기록된 〈퇴계어록〉이 있다.

퇴계 이황이야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주자 이래 최고의 학자라는 평을 받고 있으니 말이다. 흥미로운 것은 〈퇴계어록〉을 쓴 이가 학봉 김성일이라는 사실이다. 기억하겠지만, 일본에 갔다 돌아와서 '도발의 기미가 없다' 보고해 임진왜란에 대비하지 못하게 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이다.

잘 안 알려졌지만 학봉은 퇴계의 뛰어난 제자로 이른바 영남학파의 큰 줄기를 이룬 대학자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학봉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자신의 과오를 씻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그는 의병들과 함께 왜병에 맞서다 병을 얻어 생을 마감했다.

그 〈퇴계어록〉이 〈퇴계,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나왔다. 퇴계사상은 상당히 깊이 있고 그만큼 난해한 면도 있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책은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식인데다, 퇴계의 일상을 기록해 놓은 것이어서 그리 어렵지 않다. 소략하나마 퇴계의 삶과 사상을 엿보는 데 맞춘 책인 셈이다.

퇴계사상은 깊이 있고 난해한 면도 있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책은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어록으로서, 퇴계의 일상을 기록해 놓은 것이어서 그리 어렵지 않다. 퇴계의 삶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옛사람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성현이 남긴 글을 읽고 그 뜻을 새기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퇴계도 공부와 독서에 관한 말을 많이 남겼다.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이 갖춰야 할 자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는 데 있다고 여겼던 모양이니, 다음처럼 말했다.

"학문을 하는 도리는 반드시 정성을 하나로 모아 오래한 다음에야 이룩할 수 있다. 들락날락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다 말다 한다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학문을 이루겠는가. 그러므로 주자가 등공에게 이르기를, '정성을 하나로 모아 오래해야 이룬다. 두세번만 중단해도 실패한다' 하셨다."

따지고 보면, 이것이 어찌 학문하는 자세이기만 하겠는가. 무엇을 하든 퇴계가 이른 대로 한다면 되거늘, 게으름과 요행을 바라는 사특한 마음이 우리의 성취를 방해하는 듯싶다.

퇴계는 나아감과 물러남의 정치적 미학을 잘 알고 있었다. 퇴계어록에도 그에 해당하는 말이 두루 나온다. 경쟁에서 이겨 성취하는 것만이 미덕인 양 여기는 오늘의 세태와는 사뭇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다.

"내가 벼슬길에 나아가고 물러남이 앞뒤로 달라 보일 것이다. 앞에는 명령을 들으면 바로 나아갔지만, 뒤에는 임금이 불러도 꼭 사양했고 비록 나아가더라도 구태여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무릇 자리가 낮으면 책임이 가벼우니 오히려 바로 떠날 수 있지만, 벼슬이 높아지면 맡은 일도 커지니 어찌 가벼이 나아가겠는가?"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갔다면, 더 큰 뜻을 위해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한다. 퇴계가 혼돈의 시기에 큰 학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 '출세'에만 뜻있는 이들이 반드시 새겨들을 말이다. G

글 · 이권우 (도서평론가)

투자 성공 비법

글과 그림 · 최영순

당신이 원하는 것을 검(劍)으로 이루려 해서는 안 된다. 미소로 이루는 것이 좋다. -셰익스피어

나카소네 야스히로 前 일본 총리의 〈보수의 유언〉

"보수가 일본 표류 탈출의 열쇠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지음
오대영·김동호 옮김
중앙북스 펴냄·1만4천원

'도대체 일본은 무엇을 갖고 21세기의 세계에서 활동할 것인가, 또는 성장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보수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보수의 내부에야말로 표류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열쇠가 숨겨져 있다.' (머리말에서)

〈보수의 유언〉의 저자인 나카소네 야스히로(93) 전 일본 총리는 전쟁에서 패망한 이후 일본 정치사에서 우뚝 섰던 큰 그릇 중 한 명이다. 그는 1982년부터 87년까지 집권하면서 '전후 총결산'이란 개혁 프레이즈를 내세워 국영 철도 민영화 등 쉽지 않은 일들을 밀어붙여서 이뤄 냈다.

일본의 성장기를 이끈 나카소네가 집필한 〈보수의 유언〉은 60년 넘게 정치를 해 온 일본 원로 정치인의 경험, 지식, 식견을 토대로 일본은 물론 아시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일본 정치인들의 역할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밝힌 책이다.

저자는 "정치인이 국민의 목소리에 응하지 않는다면 정치인의 존재는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려울 때마다 일본 국민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듣고 소망을 실천하려 했다.

이 책에는 일본의 역사, 문화 이야기도 풍부하게 나와 일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그가 친하게 지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후야오방 전 중국공산당 총서기,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저우언라이 전 중국 총리 등 유명한 지도자들에 얽힌 일화를 들어 흥미를 더해 준다.

나카소네 총리는 역대 일본 총리 가운데 한일 우호를 가장 중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1960년대 초반 한일 양국의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1983년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경제협력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등 양국의 우호 증진에 앞장섰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1985년 8월 15일 일본 총리로는 최초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해 한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이후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그 자신은 야스쿠니 방문을 한 번으로 끝내고 한일 우호 증진에 힘써 왔다.

나카소네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 취임식 때마다 단골로 참석하고 있다. 그는 한·중·일 3개국 정상의 셔틀외교와 경제협력 등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힘을 쏟고 있다. 나카소네의 아들 히로후미 전 외무장관도 대를 이은 지한파다. 히로후미는 2002년 월드컵 때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붉은악마 티셔츠를 입고 한국을 응원하기도 했다. 문부장관 시절에는 한국인 유학생 지원을 확대했다.

글·서일호 기자

새로 나온 책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이해인 지음
샘터 펴냄·1만2천8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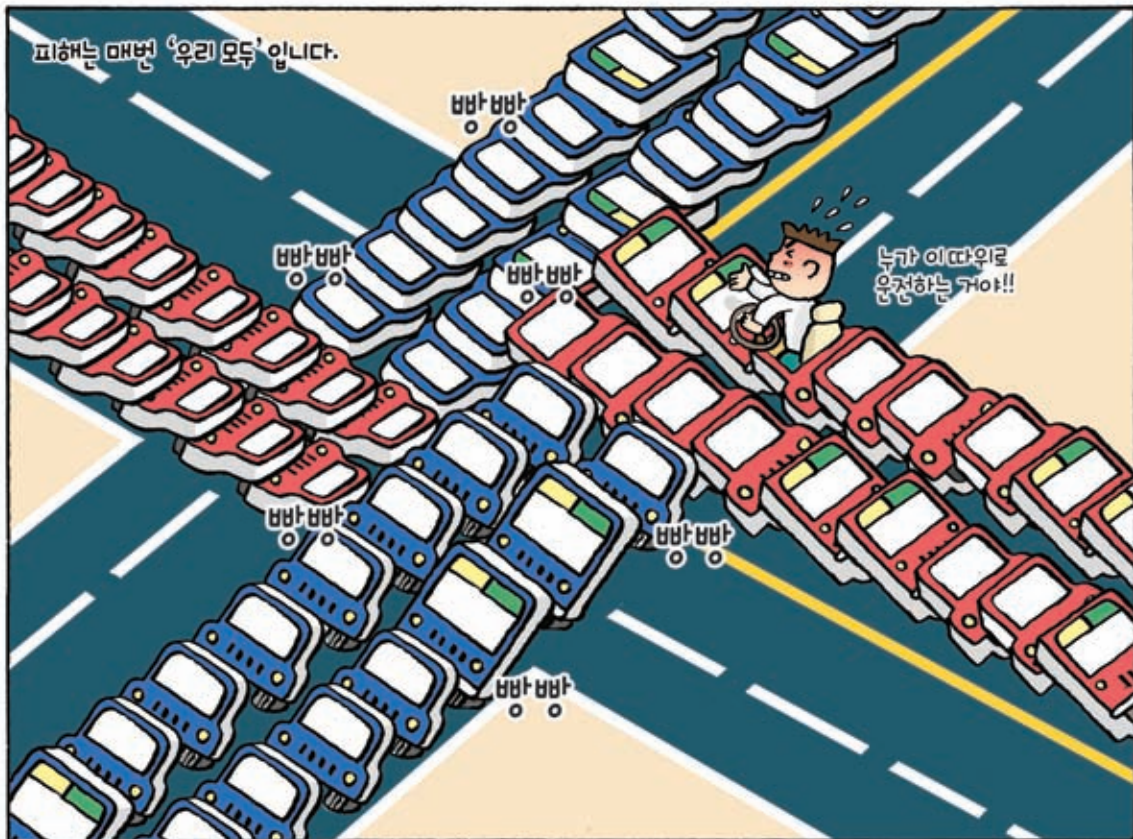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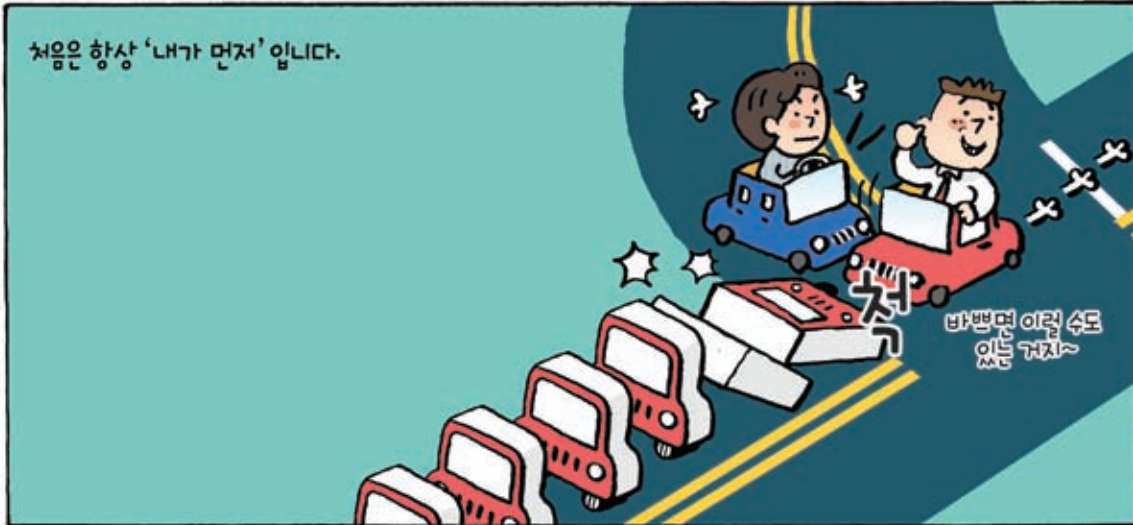
암 투병과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견뎌 내는 아픔의 시간들을 고스란히 담았다. 전체 여섯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이해인 수녀의 일상을 담은 칼럼들과 우정에 대한 단상들, 수도원의 나날, 누군가를 위한 기도와 묵상, 그리고 꽃이 된 그리움을 담은 추모의 글들을 담았다. 과장없는 담담한 글 속에서, 일상의 소중함과 아름다운 수도자의 삶을 엿볼 수 있다.

그리스인 이야기

앙드레 보나르 지음·양영란 옮김
책과함께 펴냄·2만5천원

신화의 베일에 가려진 고대 그리스 문명의 핵심을 살펴본다. 저자는 그리스 문명 자체가 아닌, 고대 그리스인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를 집약한 이 책은 문명을 일구기 위해 흘린 피와 땀을 더욱 생동감 넘치게 그린다.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현대 문명을 진단하고 되짚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도미노 도로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꼬리물기 하지 마세요. 양보운전이 제일 빠른 선택입니다.

사별한 부부의 유쾌한 러브스토리

연극 **민들레 바람 되어** 이 세상 모든 부부에게 바치는 가슴 따뜻한 러브스토리. 〈민들레 바람되어〉는 부부의 사랑과 아버지의 외로운 인생여정을 그렸다. 2008년 초연 전회 매진, 객석 점유율 1백15퍼센트 기록, 전국 10개 지방 공연 전석 매진 기록의 인기연극이다. 초연 이후 매회 매진행렬을 달린 〈민들레 바람 되어〉는 2011년 한국공연예술센터 걸작공연 시리즈로 선정되었다. 거듭되는 관객들의 앙코르 연장공연에 들어갔다.

이번 공연에서는 정보석, 조재현, 이광기 등 연극파 배우들을 만나볼 수 있다. 죽은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며 힘들게 살아가는 남편과 그런 남편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아내의 모습을 보여준다.

평범한 은행원 안중기는 아내의 무덤을 찾아 딸 이야기부터 직장 이야기까지 소소한 일상들을 이야기하며, 힘든 세상살이를 털어놓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쓸쓸함과 허무함에 작아지던 그는 극 후반부에 큰 비밀을 알게 되면서 인생의 회환을 쏟아낸다.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두 부부가 서로 품고 있던 오해와 갈등을 하나 둘씩 풀어 간다. 부부의 사랑과 이해, 소통을 유쾌하면서 감동적으로 그린다.

일시 2011년 5월 29일까지 **장소**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2관 **관람료** R석 4만5천원 S석 3만5천원 발코니석 2만5천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766-6007

김흥구
부부의 사랑과 아버지의 외로운 인생여정을 다룬 연극 〈민들레 바람되어〉

조선DB
갈매기

최정원의 피아프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컬 배우 최정원이 선사하는 감동과 음악이 있는 연극 무대. 〈사랑의 찬가〉 〈장밋빛 인생〉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등 에디트 피아프의 주옥 같은 히트곡들을 부른다. 천당과 지옥을 오갔던 굴곡진 피아프의 삶이 하나의 무대로 응축되어 연극으로 만들어져 관객들과 만난다.

일시 2011년 4월 30일~6월 5일 **장소**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 **관람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2230-6600

갈매기 〈갈매기〉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한 애정 어린 희곡으로, 연극 안과 밖의 삶을 과장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김금지, 송승환, 정상철, 윤여성 등 당대 최고의 관록을 자랑하는 연극인들이 최상의 무대를 관객에게 선사한다. 김석만 연출과 신선희 무대디자이너가 만들어 내는 19세기 말 러시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일시 2011년 5월 8일까지 **장소**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R석 5만원 S석 3만5천원 A석 2만원 **문의** 1644-2003

그리스

몬테크리스토

친정엄마 – 제주

뮤지컬

그리스 39년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증명된 최고의 뮤지컬 그리스가 2011년 4월 한전아트센터로 무대를 옮겨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뮤지컬아이돌프로젝트를 통해 선발된 예비 스타들과 탄탄한 실력을 갖춘 뮤지컬 배우들의 조화로 이전보다 더욱 신선하고 더욱 화려해졌다.

일시 2011년 4월 30일까지 **장소** 한전아트센터 **관람료** VIP석 7만원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1588-5212

몬테크리스토 인간 삶의 희로애락을 한 작품 속에 풀어 내 시대를 초월한 대작이라는 평가를 받는 〈몬테크리스토〉가 뮤지컬로 부활했다. 사랑, 야망, 배신, 성공, 복수, 용서를 한 작품 속에 녹여 내 탄탄하고 스릴감이 있다. 〈너희에게 선사하는 지옥〉, 〈언제나 그대 곁에〉로 한국 관객들을 사로잡은 세계적인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 혼의 매력적인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일시 2011년 4월 24일까지 **장소** 충무아트홀 대극장 **관람료**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2230-6600

친정엄마 – 제주 연극, 영화에 이어 뮤지컬까지 성공적인 흥행을 거둔 〈친정엄마〉가 제주를 찾는다. 딸을 시집보내면서 겪는 해프닝과 갈등의 이야기다. 국민엄마 나문희·김수미가 함께하며, 이유리·이꽃님 등 연기파 배우들을 만날 수 있다. 〈님과함께〉 〈소녀시대〉 〈어쩌다 마주친 그대〉 등의 친근한 음악들이 뮤지컬로 다시 태어났다.

일시 2011년 5월 14~15일 **장소** 제주 아트센터 **관람료** VIP석 7만7천원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A석 4만4천원 **문의** 1600-4534

콘서트

2011 이문세 붉은 노을 세상의 모든 주인공에게 바치는 'Party' 같은 콘서트. 2009년~2010년 큰 인기를 끈 〈이문세 붉은 노을〉 콘서트가 2011년 4월 다시 시작한다. DJ 활동으로 다져 온 이문세의 입담과 함께 그의 주옥같은 명곡들을 들으며 아날로그적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공연이다. 이문세는 이번 공연에서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열정적인 무대매너를 선보인다.

일시 2011년 4월 17일까지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 **관람료** VIP 일반 9만9천원 학생 4만9천5백원 장애인 및 동반자 30퍼센트 할인 **문의** 02-747-1252

2011 어버이날기념 김영임 소리 孝 대공연 – 부산 부모님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공연 1위! 70만 관객과 함께 울고 웃던 김영임 소리 孝 대공연이 부산을 찾는다. 김영임 소리 孝 대공연은 국악과 드라마, 퍼포먼스가 함께 어우러진 국내 최초로 시도된 국악 뮤지컬이다. 이번공연에서는 35주년 기념 앨범에 수록된 신곡까지 만나볼 수 있다. 새로운 구성과 한층 업그레이드된 이번 공연은 효의 근본을 일깨워주는 공연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일시 2011년 5월 14일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관람료** VIP석 8만8천원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A석 5만5천원 장애인·국가유공자 30퍼센트 할인 **문의** 1644-4868

전시

미술관사파리 – 성남 미술관사파리는 디자인적 감성과 현대미술이 함께하는 새로운 개념의 탐험형 전시다. 이번 전시는 사파리 속 동물을 보고, 듣고, 만지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파리 탐험 속 5개의 미션을 수행하며 사파리의 흥미진진함을 느낄 수 있다.

일시 2011년 4월 29일까지 **장소**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관람료** 어린이 1만5천원 성인 1만원 **문의** 031-783-8142

정리·이미령 인턴기자

4월 둘째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3월 27일~4월 2일

곡명	가수
1 제발	김범수
2 직감	씨엔블루 (CNBLUE)
3 You Are My Lady	김건모
4 아파 아이야	양파
5 약속	백지영
6 Dash (With YB)	윤도현
7 가슴이 뛴다	케이윌 (K.Will)
8 반짝반짝	걸스데이 (Girl's Day)
9 첫인상	박정현
10 가슴 시린 이야기 (Feat. 용준형)	휘성

친서민적인 배트맨 착하게 살자! 아이언맨

영웅은 시대가 만든다는 말이 있다. 〈배트맨〉 시리즈는 영웅과 시대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영웅은 본래 힘이 센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헤라클레스라든가 중국의 관우 같은 경우가 그렇다. 영화에서도 그런 힘센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수퍼맨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배트맨은 예외에 속한다. 배트맨은 선천적으로 힘이 세지 않은 대신 신형 무기들을 잘 활용한다. 배트맨에 와서 영웅은 서민의 이미지로 변화됐다. 속편인 〈배트맨 비긴스〉에서 배트맨은 탄생의 비밀까지 털어놓는다. 배트맨의 부모는 악당의 손에 의해 살해당하고 배트맨은 그 복수를 위해 전 재산을 털어 넣은 채 어둠 속에서 선행을 하게 된다. 그의 정체를 알면 안 되므로 그는 정상적인 사람처럼 사랑도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고뇌까지 겪는다.

이러한 배트맨의 이미지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찰스 브론슨 주연의 〈데스 위시〉에서 처음 나타난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아내와 화목한 생활을 하는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이다. 어느 날 그에게 불행이 찾아오는데 아내와 처제가 동네 건달들에게 처참하게 성폭행당해 아내가 결국 숨지고 만다.

처제는 그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회복불능상태에 놓이게 된다.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세월이 흘러가고 주인공의 마음도 황폐해져 간다. 주인공은 우연히 총 하나를 얻게 되면서 동네 건달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간다. 그 마을은 점차 범죄율이 없어지고 경찰서장도 좋아하게 된다. 마을 주민들은 언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웅의 행동을 알게 되고 그를 예찬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경찰은 범죄율이 없어진 건 좋은 일이지만 건달들을 살해한 그 영웅을 구속해야 할지 고민에 휩싸인다. 결국 그 영웅이 평범한 시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그를 구속한다. 하지만 시민은 영웅을 동정하고 처벌하지 말라고 외친다. 처음으로 영웅이란 것이 미디어에 의해 조작되거나 형성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다크 나이트〉에 오면 가짜 배트맨이 등장한다. 그는 배트맨 복장을 한 채 나쁜 일을 함으로써 배트맨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한다. 배트맨은 가짜 배트맨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나쁜 영웅으로 억울하게 몰리는 상황이 된다. 배트맨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이 영화는 현대 영웅의 실체를 잘 파악하고 있다. 영웅은 대중이 만든 것이고 악당은 그 대중여론을 조작해서 영웅을 사라지게 하는 실험을 한 셈이다.

서민적으로 변화한 배트맨의 이미지는 1970년대 찰스 브론슨 주연의 〈데스 위시〉에서 처음 나타난다. 이 영화는 영웅이란 미디어에 의해 조작되거나 형성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제 정의롭고 초월적인 영웅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대중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적 여론의 영웅 시대가 된 것이다.

현대의 영웅은 〈데스 위시〉와 〈배트맨〉의 뒤를 이어 평범한 서민이 대중의 여론을 통해 존재하는 영웅으로 나타난다. 〈아이언맨〉도 그중 하나다. 아이언맨은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양심적이지 않다. 배트맨도 재산상태는 부유했으니까 부유한 것은 그렇다 쳐도 배트맨은 선악을 생각하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고민하는 진지한 면을 갖고 있었다.

반면 아이언맨은 무기를 판매하는 미 제국주의의 첨병으로서 국제적으로도 부도덕하고 자신을 천재라고 생각하는 부유한 미국 플레이보이 같은 타입이다. 영화는 그런 주인공이 개과천선하여 진정한 영웅이 된다는 줄거리를 갖는다.

그 이면에는 언론에 의한 영웅 만들기가 한몫을 한다. 그의 내면은 결코 영웅이 아니지만, 그가 하는 행동은 미국의 정의로움을 대변하는 영웅의 모습으로 변모한 것이다. 이처럼 현대영웅의 이미지는 아이러니하다. 이제 초기의 정의롭고 초월적이기만 한 영웅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대중에 의해 움직이는 서민적이면서도 사회적 여론의 영웅이 된 것이다. G

정재형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인터넷 민원신청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110 정부대표전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대표전화110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 110은 정부대표전화입니다.
- 317개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를 상담안내해 드립니다.
- 이제 110 하나의 번호만 기억하시면, 정부 업무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110 상담내용

▶일반 민원 상담

전국 관공서 안내,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새 주소, 여권, 자동차 등록, 운전면허, 학교행정, 교육, 병무, 보훈, 건설공사, 주택건축, 인 · 허가 절차, 민원 처리 기관 안내, 정부통계 등 모든 행정 사무

▶세금, 공공요금 상담

양도소득세, 상속세, 관세, 취득세, 주민세, 유가환급금, 근로장려금, 벌금, 과태료, 수도요금, 연말정산 등

▶사회안전망 상담

일자리 안내, 기초생활수급, 사회복지, 서민금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노인복지, 영유아 보육비 지원, 채무 상담 등

▶생계침해 신고 상담

불법 사금융, 임금체불, 과다소개료, 불법 직업소개, 취업 사기, 금품 착취, 불공정 계약, 성 폭력 피해, 환경 피해, 보이스피싱, 교통불편 신고 등

110 서비스 안내

▶전화민원 "Happy Call" 서비스

기관에 연결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은 개선해 드립니다.

▶수화상담 서비스

씨토크 영상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하시면, 전문 수화상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외국어상담 서비스

영어, 일어, 베트남어 등 20여 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110 서비스

휴대전화로 110 모바일 웹페이지(m.110.go.kr)에 접속하시면 문자상담 예약상담이 가능합니다

▶예약상담 서비스

110홈페이지(www.110.go.kr)에서 원하는 상담 시간과 내용을 예약하시면, 예약하신 시간에 상담사가 전화를 드려 상담해 드립니다.

▶예약민원 "Call Back" 서비스

심야 및 공휴일, 기관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문의하신 경우 근무일에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려 민원 상담을 해 드립니다.

▶문자상담 서비스

민원인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문의 내용을 보내면 상담사가 문자메세지로 신속하게 문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110 이용안내

상담 시간 – 평일 : 오전 8시 ~ 밤 9시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韓세상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미근동 257)